

# The 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Welfare

May, 2023 \* Vol. 1, No. 1

## 글로벌융합복지 리뷰

2023년 5월 \* 제1권 1호

### [견두언]

『글로벌융합복지』 창간호를 발간하며... 강석주

### [투고논문]

노인의 우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강희정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복지 갈등에  
관한 연구 김사연 · 임해영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유순호 · 임해영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연구 이한나

노인의 건강상태지각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노후 준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재근

The 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Welfare  
The 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Welfare  
The 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Welfare  
The 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Welfare



글로벌융합복지학회

# 글로벌융합복지

The 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Welfare

제1권 1호

## 목 차

### 강석주

『글로벌융합복지』 창간호를 발간하며 ..... 1

### 강희정

노인의 우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3

### 김사언 · 임해영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복귀 갈등에 관한 연구 ..... 24

### 유순호 · 임해영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61

### 이한나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연구 ..... 93

### 최재곤

노인의 건강상태지각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노후 준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116



[ 권두언 ]

## 『글로벌융합복지』 창간호를 발간하며

강석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 학회장 직을 맡은 강석주입니다.

이번 창간호가 '글로벌융합복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학술지가 세상에 첫걸음을 내딛기까지 수고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지는 학문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매체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하여 학문의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곳입니다.

이 공간을 통하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치열한 고민이 깃든 투고논문과 엄정하고 학문적 경륜이 돋보이는 심사가 어우러져 연구자들의 역량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학술지가 글로벌, 융합, 복지에 걸맞은 위상과 내실을 갖추도록 학회장 이하 모든 임원진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도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2023년 아름다운 5월에.

글로벌융합복지학회 초대 학회장 강석주



글로벌융합복지

The 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Welfare

2023. 5. 제1권 1호 : 3-22

## 노인의 우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강희정\*\*

###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우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사회적 자본이 이를 조절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2018년도)에서 65세 이상 노인 3,0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우울은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활동 자본과 지인 자본은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자본은 인지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사회활동 자본과 우울\*지인 자본은 인지기능에 정적인 조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가족 자본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노인의 우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노인 관련 프로그램 또는 상담에 있어서 우울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울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인지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노인 우울의 근원을 잘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완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사회적자본이 우울의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노인의 활동과 사회적자본 마련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활동자본과 지인자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당만이 유일한 대안인 사회적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에서부터, 가족자본에 매이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상담과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주제어 : 노인 우울, 인지기능, 사회적 자본, 고령화 연구패널조사(KLoSA)

\* 이 논문은 강희정의 2022년도 박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 한 것임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도교수

## I. 서론

장수가 행운이고 축복이라는 것은 옛말이고, 지금은 최대한 건강하게 삶을 누리며 오래도록 살아가는지가 관건인 시대이다.

최근 통계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85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6.5%에 해당한다(통계청, 2021).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3%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노인 인구는 은퇴 이후에 최소 20년 이상을 노년기로 보내야 하며, 얼마나 건강하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노인 개인의 삶의 문제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도 고령 인구의 증가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상정하고 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의 의료비용과 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주요한 영역이다. 최근 5년간의 증감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10.4%, 2015년 11.4%, 2016년 13.6%, 2017년 12.1%, 2018년 12.4%로 나타나 꾸준히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중 ‘노인성 질환’ 관련 진료비는 총진료비의 40.8%를 차지하는 수준이었고, 이러한 ‘노인성 질환’의 원인으로는 치매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보건복지부, 2018).

우리나라 치매 현황(2018년)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0.0%로 나타나고 있으며, 치매 환자는 2050년도에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21). 치매는 한번 발생하면 호전이 어렵고, 치매에 걸린 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도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성 치매는 다양한 원인을 가지며, 주요 원인으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발병 확률이 높다(윤영훈·박선아, 2010). 즉, 치매를 미리 예방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조기에 인지기능 저하 징후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Narazaki K. et al., 2014).

노인에게 치매의 원인이 되는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우울증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40.4% 차지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울증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sup>1)</sup> 특히 우울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 정도로 나타나는 노년기의 대표적 질병이며, 우울증은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에 의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이현주·강상경, 2011), 우울의 심화가 인지기능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http://blog.naver.com/momejonkr/2020.05.01>.

하였다(Ganguli M. et al., 2007).

이러한 우울과 인지기능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에서 노인의 우울은 인지기능 저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권성철, 2021). 이는 노년기의 역할상실과 신체적 노화에 의한 신체적 약화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고독감과 외로움 등이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노인의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수연, 2019).

노인의 인지기능이 저하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필수적 부분에 장애가 발생한다. 이는 본인 스스로 심각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 주변 가족과 보호자에게 심신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부가적인 고통이 나타나게 된다(이성은, 2013). 즉 치매라는 질병이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과 관련하여 전 국민의 정신적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우울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예방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노인의 사회자본이 노인의 우울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조절할 것으로 보았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개인이 사회적 수준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원, 지식, 정보 등을 획득하는 능력(Narayan and Cassidy, 2001)이다. 이현주(2015)는 노년기의 사회적 자본과 인지기능이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며, 좋은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노인일수록 더 많은 사회자본에 참여하여 인지기능이 좋아져서 사회자본과 인지기능은 순환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중에서 친목, 동창회, 여가활동 등 사회활동 자본이 많을수록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은명, 2021), 김형관·이상록(2021)은 우울증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사회활동 자본이 조절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혔다. 이는 우울은 사회활동을 감소시키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이 감소하는 순환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측면에서 단일한 요인으로 측정되어 연구에 투입되었거나,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측면의 하위요인 중 일부만 반영되어서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측면에서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영애(2016)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을 사회활동 참여, 지인의 만남 정도, 월평균 자녀 만남 정도 등 3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손용진(2010)은 노인의 사



회적 자본을 사회적 연결망으로 동창회, 친목 단체 활동, 여가활동 등 사회활동 참여와 비공식적 지지망인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으로 구성하여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측면의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자본은 사회적 연결망인 사회활동 자본, 비공식적 지지망인 가족 자본, 지인 자본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과 비공식 지지망이 우울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실천적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 자본, 가족 자본, 지인 자본을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여 노인의 우울이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을 모집단으로 설계한 고령화 연구패널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우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여, 노인 우울증 예방과 인지기능 향상을 위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자본 증진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노인의 우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노인의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은 조절 영향을 미칠 것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인지기능의 개념

인지기능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각종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조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인지기능은 3개 범주로 구분하며, 첫째, 조직기능은 개념화, 서열화, 범주화, 둘째, 추론 기능은 귀납, 연역, 유비추리 기능, 셋째, 분석기능은 비교, 관계와 구성요소 및 유형 파악, 핵심 개념 파악, 특성 확인, 오류 검정 등을 뜻한다.

인지기능은 자신의 주변에서 다양한 정보를 입수, 저장, 사용하는 대표적 정신기능(신연정·김홍근, 2014)이며, 이는 하위 인지기능과 상위 인지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위 인지기능은 언어, 작업 기억, 주의, 기억, 시공간과 같은 기능이며, 상위 인지기능은 하위 인지기능을 조절, 통제, 관리하는 기능을 말한다. 또한, 인지기능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구분하며, 유동성 지능은 선천적 지능으

로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지능을 의미하며, 결정성 지능은 일상의 경험이나 학습과 관련한 기억에 관여하는 지능을 의미한다(정옥분 외, 2008).

인지기능의 영역은 지남력, 판단력, 기억력, 주의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등을 포함하며, 인지기능은 지능과 연관되는 기능과 혼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또한, 인지기능의 결함에서 수반되는 뇌 기능 감퇴와 관련된 신경학적 연구(박태진, 2004)에서 신경세포의 문제에서 오는 시냅스<sup>1)</sup> 상실과 수상돌기<sup>2)</sup> 감소의 원인으로 뇌 부피가 줄어드는 노화 현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영향요인은 전전두엽의 부피감소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지만 해마의 부피감소는 알츠하이머형<sup>3)</sup> 치매로 볼 수 있는 현상(최선영 외, 2005)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기능에 관한 연구는 1990년 중반 이후 현재까지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주제를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인지기능의 측정 도구 개발과 평가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는 인지기능의 평가에 관한 연구로 박태진(2004)이 노화와 인지기능 저하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셋째는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는 인지행동(추수경 외, 2007), 신체활동(최연희·김나영, 2013), 미술치료(김영숙·도복늬, 2005), 음악치료(최애나 외, 2010)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넷째는 최근에 인지기능과 사회적 변인(사회적 배제, 사회적 자본 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 연구들은 인과관계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변인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하정화 외, 2015).

이상과 같은 연구를 종합해보면 기존연구는 신체적 노화에 관한 연구에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일부 연구에서 인지기능 저하 원인이 다양한 사회적 변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1) 시냅스, 어린이 과학동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 부위

2) 수상돌기(dendrite) ; 신경의 수상돌기는 대부분 신경세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관계로 대부분 신경세포의 세포체로부터 나무가지(樹枝) 모양으로 나와 있는 형태(생명과학대사전)

3) 서울대학교병원 의학 정보,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발생시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Alois Alzheimer 박사가 최초 보고

## 2.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

노년기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살펴보면, 손근호·김경호(2021)는 노인의 우울 수준은 인지기능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인지기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도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건강상태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 수준이 낮아지면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좋아진 건강상태가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년기의 역할상실과 신체적 노화에 의한 신체적 약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독감과 외로움 등이 만성적 질환 우울증으로 쉽게 발전될 수 있으므로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적극적 예방이 필요하다.

권성철(2021)의 연구에서는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의 인지기능은 일반적 노화 과정과 더불어 우울과 같은 다양한 심리, 사회적 배제, 사회적 구조의 변인에 의해서 악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가 우울 증상을 악화시키고, 우울 증상의 악화가 인지기능을 감소시키는 쌍방향 관계가 있으며(이현주·강상경, 2011), 우울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3. 사회적 자본과 인지기능의 관계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인지기능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현주(2015)의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지기능은 상호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것과 더불어 더 좋은 인지기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후 더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사회적 활동과 인지기능 간에는 순환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 예방과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강수연 등(2016)의 연구에서 노인들이 여가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교육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정은영(2020)은 여가활동 중에서 생산적 여가활동이 남녀 모두에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적 여가활동과 기타 여가활동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임(2021)의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활동과 인지기능과의 관계에서 사회활동은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사회활동이 증가할수록 지남력, 기억등록,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 언어 및 시공간 구성 수준은 높아진다. 이상과 같이 노인의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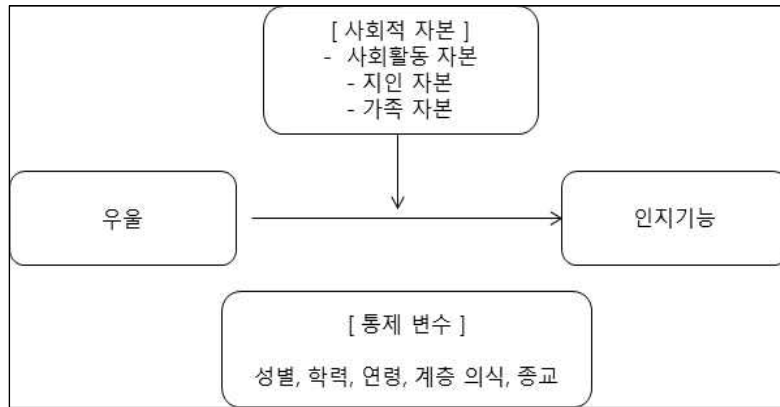
#### 4.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노인의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형관·이상록(2021)의 연구에서 우울은 인지기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활동에서 친구 만남, 종교와 친목 모임은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빈곤과 사회활동에서 여가 여행의 조절은 인지기능에 정적인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은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빈곤 영향을 완화함에 운동이나 여행 등의 활동이 주요한 대처자원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 사회적 자본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 우울, 조절변수로 사회적 자본으로 설정하고 통제변수를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다음으로 연구가설은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우울은 인지기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자본은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우울과 인지기능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은 조절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측정 도구

### 1) 독립변수 : 우울

독립변수 우울증의 척도는 미국 국립정신보건원(1997)에서 개발한 우울 표준화 검사 CES-D(Radloff, 1997)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명제 외 (1993)가 개발한 한국판 CES-D의 축소판 CES-D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지난 1주일 동안 느낌과 행동이 ‘사람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느낌’, ‘마음이 슬픔’, ‘우울감’, ‘모든 일이 힘들다고 느낌’ 등 10개 문항이며, 이 중에서 5, 8문항은 역채점 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1=하루 미만, 2=1일~2일 정도, 3=3일~4일 정도, 4=5일~7일 정도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으면 우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전체는 Chronbach's  $\alpha=.847$ 로 나타났다.

## 2) 종속변수 : 인지기능

종속변수인 인지기능의 척도는 Folstein et al. (1975)이 개발하고, 강연옥 등 (1997)이 한국어로 번안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를 활용하였다. MMSE 척도는 정답과 오답을 각각 계산한 후 최종적인 총점으로 인지기능 점수를 측정하도록 한다. MMSE 점수는 총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매 의심(0점~17점), 인지기능 저하(18점~23점), 정상(24점 이상)으로 되어있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정상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 3) 조절변수 : 사회적 자본

노인의 사회적 자본에서 첫째, 사회활동 자본은 종교, 친목, 여가문화, 동창회/향우회, 자원봉사활동, 정당 활동이라는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각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에 따라서 ‘참여=1’, ‘불참=0’으로 더미화 하여 이들의 합을 사회활동 자본으로 하였다. 둘째, 지인 자본은 친한 친구와 만남 횟수로서 ‘전혀 만나지 않음’=10에서 ‘주 4회 이상 만남’=1이며, 셋째, 가족 자본은 ‘동거자녀’, ‘30분 이내 거주 자녀’, ‘1시간 이내 거주 자녀’, ‘주 1회 이상 메일이나 전화하는 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자녀의 유무로 더미화 하여 ‘있음=1’, ‘없음=0’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에서 지인 자본은 역으로 채점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인 자본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 연구패널조사(KLoSA)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고령화 연구패널조사 최근 2년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7차 조사(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는 고령자의 사회, 경제, 심리, 인구학적 형성과 건강상태 등을 설문 조사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회 및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용될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것에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20). 본 패널의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만 45세(1961년 이전) 이상 중에서 임의표집 된 10,254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총 3,06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수집한 자료는 SPSS ver.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 변인에 대하여 내적 일치성인 Cronbach's로 신뢰도를 확인한다. 둘째,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우울, 인지기능, 사회적 자본 등 변수에 대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파악하여 변수의 정규분포 적용 여부를 살펴본다. 셋째, 우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우울과 인지기능의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에 대한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다. 또한, 조절변수인 우울과 사회적 자본은 평균화중심변수로 전환하여 회귀분석 한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 남자 1,342명(43.8%), 여자 1,725명(53.2%)으로 여자가 더 많으며, 연령대는 65세~69세 1,022명(33.3%), 70세~74세 736명(24.6%), 75세~79세 671명(21.9%). 80세~84세 420명(13.7%), 85세 이상 76명(5.7%)이며, 여자는 65세~69세 561명(32.5%), 70세~74세 392명(22.7%), 75세~79세 393명(22.8%). 80세~84세 237명(13.7%), 85세 이상 218명(7.1%)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남자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1,413명(46.1%), 중학교 졸업 605명(19.7%), 고등학교 졸업 763명(24.9%), 대학교 졸업 이상 286명(9.4%)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개신교' 568명(18.5%), '천주교' 247명(8.1%), '불교' 480명(15.7%), '없음' 1,722명(57.8%)으로 종교가 없는 노인이 더 많으며, 계층의식은 상위계층 1,338명(43.6%), 중위계층 1,654명(58.9%), 하위계층 75명(2.5%)으로 중위계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노인 인지기능의 평균은 25.2(표준편차=4.925)이며 우울은 1.6(표준편차=0.499)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활동 자본은 3.5(표준편차=1.714), 지인 자본은 6.9(표준편차=2.018), 가족 자본은 평균 1.8(표준편차=.995)로 나타났다. 이들의 왜도는 -1.355~0.676 사이에 있어서 절대값이 2.0보다 작으며, 첨도는 -1.056~1.737 사이에 있어서 7.0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에 이 변수들은 모두 정규성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구동모, 2017).

종속변수 인지기능과 독립변수 우울의 상관계수는 ( $r = -.306$ ,  $p < .001$ )이며, 종속변수인 인지기능과 사회적 자본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사회활동 자본과 인지기능은 ( $r = 0.213$ ,  $p < .001$ )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지인 자본과 인지기능 ( $r = .029$ ,  $p > .05$ ), 가족 자본과 인지기능( $r = .016$ ,  $p > .05$ )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구분		우울	사회적 자본			인지기능
			1	2	3	
우울		1				
사회적 자본	사회활동 자본	-.049**	1			
	지인 자본	-.195**	-.390**	1		
	가족 자본	-.068**	0.007	0.018	1	
인지기능		-.306**	.213**	0.029	0.016	1
평균		1.6	3.5	6.9	1.8	25.2
표준편차		0.499	1.714	2.018	0.995	4.925
왜도		0.676	0.48	-1.272	0.612	-1.355
첨도		0.088	0.128	1.425	-1.056	1.737

\* $p < .05$ , \*\* $p < .01$



### 3. 연구모형 검증

노인의 우울과 인지기능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은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연구모형 검증은 조절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먼저 우울과 사회적 자본의 조절변수에 대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변수<sup>1)</sup>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조절효과 검증절차는 첫째,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모형1], 둘째, [모형 2]에 독립변수\*조절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지수(VIF)가 1.012에서 1.434 사이에 있어서 10.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 1]은 통제변수와 우울, 사회적 자본을 함께 투입하여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88.004$ ,  $p<.001$ ). 이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우울( $\beta=-.231$ ,  $p<.001$ )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활동 자본에서 사회활동 자본( $\beta=0.048$ ,  $p<.05$ ), 지인자본( $\beta=0.051$ ,  $p<.05$ )는 정적인 영향, 가족자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인은 노인의 인지기능에 대해 32.9%의 설명력이 있다.

[모형 2]는 통제변수와 우울, 사회적 자본과 우울\*사회적 자본을 함께 투입하여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67.279$ ,  $p<.001$ ). 이를 살펴보면, 우울( $\beta=-.223$ ,  $p<.001$ )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활동 자본에서 사회활동 자본, 지인 자본, 가족 자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사회적 자본의 조절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에서 우울\*사회활동 자본( $\beta=0.053$ ,  $p<.05$ ), 우울\*지인 자본( $\beta=0.070$ ,  $p<.051$ )은 인지기능에 유의한 정적인 조절영향을 미치며, 우울\*가족 자본은 유의한 조절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0.5%이었다.

---

1) 평균중심화 변수(Mean centioning variable)  $C = (A - \overline{A}) \times (B - \overline{B})$

〈표 2〉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 조절 효과

모형	변수	B	SE	$\beta$	t	tolerance	VIF
모형1	통제변수	(상수)	27.307	.925	29.516***		
		성별(남자=1)	1.012	.238	.097	.814	1.228
		학력	1.030	.121	.205	.722	1.386
		연령대	-1.187	.089	-.304	.803	1.245
		종교(유=1)	-.105	.217	-.010	.966	1.035
		계층의식	.509	.204	.054	.908	1.102
	독립변수	우울	-2.363	.224	-.231	.876	1.141
	조절변수	사회활동자본	.143	.072	.048	.736	1.359
		지인자본	.132	.060	.051	.790	1.267
		가족자본	-.016	.107	-.003	.988	1.012
모형2	통제변수	(상수)	27.687	.932	29.706		
		성별(남자=1)	1.030	.238	.098	.808	1.238
		학력	1.043	.121	.208	.719	1.392
		연령대	-1.183	.089	-.303	.802	1.247
		종교(유=1)	-.143	.217	-.014	.962	1.040
		계층의식	.497	.204	.052	.905	1.105
	독립변수	우울	-2.274	.226	-.223	.852	1.173
	조절변수	사회활동자본	.118	.072	.039	.724	1.381
		지인자본	.078	.064	.030	.698	1.434
		가족자본	-.005	.107	-.001	.982	1.019
	독립*조절	우울_사회활동	.294	.124	.053	.850	1.177
		우울_지인	.311	.106	.070	.744	1.345
		우울_가족	.106	.205	.011	.980	1.021
통계량	구분	R <sup>2</sup>	adj R <sup>2</sup>	$\Delta R^2$	F		
	모형 1	.333	.329	.060	88.004***		
	모형 2	.338	.333	.005	67.279***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론

###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3,067명이며, 자료 분석은 SPSS V. 22.0 프로그램으로 조절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우울은 인지기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손근호 김경호, 2021; 권성철 202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

은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손근호·김경호(2021)의 연구에서 노인 우울 수준은 인지기능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의 역할상실과 신체적 노화에 의한 신체적 약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독감과 외로움 등이 만성적 질환인 우울증으로 쉽게 발전될 수 있으므로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적극적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권성철(2021)은 노인의 우울 증상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인지기능은 저하하는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과 이 연구를 통하여 우울의 증가가 인지기능을 저하하게 되는 원인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노인의 경우 우울증이 인지기능 저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노인 우울 예방대책을 마련과 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자본 중에서 사회활동 자본과 지인 자본은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자본은 인지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은 사회활동 참여와 지인, 이웃 등의 만남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연결이 넓혀서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이현주, 2015; 강수연 외 2016; 김상임, 2021; 정은영, 2020; 김은명, 2021)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현주(2015)의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지기능은 쌍방향 상호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것과 더불어 더 좋은 인지기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후 더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사회적 활동과 인지기능 간에는 순환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강수연 외(2016)의 연구에서 노인 사회활동은 억제적 집행기능, 언어능력, 처리속도, 전반적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임(2021)은 인지기능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노인의 사회활동과 인지기능과의 관계에서 사회활동 모임 수, 모임 참여횟수는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지남력, 기억등록,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 언어 및 시공간 구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밝혔다. 정은영(2020)의 연구에서 사회활동 중 생산적 여가활동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적 여가활동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노인의 사회활동 자본과 지인 자본은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 가족 유형의 다양화로 이전과 같이 대가족 형태에서 노인들이 살아가지 않는다. 경제력의 약화에 따른 가족 자본은 인지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노인의 우울\*사회활동 자본의 조절, 우울\*지인 자본의 조절은 인지기능

에 정적인 조절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지인 자본과 사회활동 자본의 조절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성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가족 자본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우울이 인지기능을 낮추는 관계 속에서 지인 자본과 사회활동 자본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 연구의 주요한 발견이다.

## 2. 연구의 함의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적 자본의 세부 요인을 사회활동 자본과 지인 자본, 가족 자본의 측면에서 조명하여 조절 효과를 규명하여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 자본 논의는 신뢰성, 호혜성, 네트워크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논의되어 개념 정의와 측정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많았다. 또한, 노인의 관점에서 신뢰성, 호혜성, 네트워크 같은 영역은 충분히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활동, 지인과 만남, 가족과의 교류의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을 검증한 것이 현실 타당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 우울이 인지기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인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 세대가 겪는 우울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회적 우울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상실감은 관계성으로 해소되거나 완화되지 못하여 만성적 우울로 연계되어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노인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역할을 검증한 결과 사회활동 자본과 지인 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 이 연구의 주요한 발견이다. 특히 가족 자본이 우울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활동 자본과 지인 자본의 영향력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독거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실천적, 정책적 제언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우울 수준을 낮추고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여 인

지기능을 높이는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의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노인의 사회활동에서 동창회, 친목회, 종교 활동 등에 대한 참여가 노인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현 상태 유지 혹은 증진 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례로서 노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는 방안으로 지역 거주 노인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여 참여를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물 발간 배포하는 등의 실천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자본에서 지인 자본이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이 가족, 친구, 이웃들과 자주 만나거나 스마트폰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고립감과 외로움을 감소시켜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현 상태 유지 혹은 호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노인들이 지인들과 교류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내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우선 고민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결과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성한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를 사용하여 노인 우울, 사회적 자본 인지기능에 대한 제한된 하위변인을 사용한 한계가 있다. 향후의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사용하여 연구되었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활동 자본, 지인 자본, 가족 자본을 하위변인의 빈도 정도로 사용하여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방식을 사용하여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에 국한하여 연구하였다.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태, 삶의 질 등 다양한 변수와 사회적 자본의 매개 효과 등을 이용하여 인지기능에 관한 통합적 연구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수연·김호영·염유식, 2016, “노년기 사회활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 제35권 4호, pp. 563-587.
- 강연옥·나덕렬·한승혜, 2003,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K-MMSE의 타당도 연구”, 대한신  
경과학회지, 제15권 2호, pp. 300-308.
- 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구본미, 2013, “노년기 인지기능과 우울 수준이 일상생활 기능장애에 미치는 영향”, 한국  
노년학, 제33권 2호, pp. 315-333.
- 권성철, 2021,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 남녀집단 비교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임, 2021, “노인의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기능의 다중 매개효과와  
독거, 비독거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숙·도복금, 2005, “회상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제12권 2호, pp. 483-500.
- 김은명, 2021, “은퇴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지기능의 종단적 관계 검증”, 인문사회 21,  
제12권 3호, pp. 1531-1546.
- 김형관·이상록, 2021,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빈곤 영향과 건강행태 및 사회활동의 조절  
효과”, 사회복지연구, 제52권 1호, pp. 139-168.
- 박태진, 2004, “노인의 인지신경기전”,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제16권 3호,  
pp. 317-336.
- 백옥미, 2013, “중 노년기 우울 증상과 인지기능의 관계. 은퇴와 사별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41권 4호, pp. 94-115.
- 손근호·김경호, 2012, “노인의 우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건강상태의 매개 효과 및  
경제활동의 조절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2호, pp. 686-698.
- 손용진, 2010,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성인 자녀 관계망 및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제12권 3호,  
pp. 311-339.
- 신연정·김홍근, 2014, “뇌졸중노인의 인지기능 요인, 우울감 요인 및 상호관련성”, 재활심리  
연구, 제21권 3호, pp. 453-467.
- 윤영훈·박선아, 2010, “인지기능 장애”, 대한임상노인학회지, 제11권 1호, pp. 75-84.
- 이성은, 2013,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의 관계에서 신체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의

- 조절 효과”,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6권, pp. 49-78.
- 이영애, 2016, “노인 소비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이 노동시장 참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2권 1호, pp. 177-202.
- 이현주, 2015, “중·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지기능”, 정신건강과 사회사업, 제43권 1호, pp. 138-167.
- 이현주·강상경, 2011, “노년기 인지기능과 우울 증상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2권 2호, pp. 179-203.
- 임수연, 2019,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요인 :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정옥분·김동배·정순화·송화희, 2008,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정은영, 2020, “한국 남녀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인지기능의 관계”, 한국노년학, 제40권 3호, pp. 443-458.
- 조명제·김계희, 1993, “주요 우울증 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r Epdemilogic S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32권, pp. 381-398.
- 추수경·유장학·이정열, 2007,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인지기능저하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일상 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학연구지, 제37권 7호, pp. 1049-1060.
- 추수경·최희정·유장학, 2010, “일지역 여성노인의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6권 2호, pp. 131-137.
- 최선영·문원진·정은철·노흥기·박광보·나덕렬, 2005,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의 Optimized VBM: 뇌 회색질 감소와 임상 척도와의 연관성”, 대한영상학회지, 제53권, pp. 323-329.
- 최연희·김나영, 2013, “지역 주민 건강리더를 활용한 자조운동 프로그램이 노인의 체력, 인지기능,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3호, pp. 346-357.
- 최애나·김윤희·정광조, 2010, “음악치료 활동이 주간보호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제6권 1호, pp. 103-121.
- 하정화·정은경·정은석, 2015, “노년기 인지기능 감퇴 정도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 변화: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6권 1호, pp. 5-30.
- 황중남·권순만, 2009, “중·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지기능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제29권 3호, pp. 971-986.
- Folstein, M., Folstein, S., and Mchugh, P., 1975, “Mini-mentalstate A practical method for grading the cognitive state of patients for the clinician”,

- Journal of Psychiatry Research*, 12, pp. 189-198.
- Ganguli M. , Dodge Y, Du, H., Ratcliff G., and Chang C., 2006, "Depressive symptoms and cognitive decline in late life: A prospective epidemiological study", *Arch Gen Psychiatry*, 63(2), pp. 153-160.
- Korczyn A. D. and Halperin I., 2009, "Depression and dementia," *Journal of the neurological sciences*, 283, pp. 139-142.
- Narayan, D., & Cassidy, M. F. 2001,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49(2), pp. 59-102.
- Narazaki K., Mastsuo E., Honda T., Nofujo Y., Yonemoto K., and Kungai S., 2014, "Physical fitness measures as potential markers of low cognitive function in Japanese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without cognitive problems", *Journal of Sport Science and Medicine*, 13(3), pp. 590-596.
- Owaby R., Crocco E, Acevedo A., John V., and Loewenstein D., 2006, "Depression and risk for Alzheimer disease: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meta regression analysis," *Arch Gen Psychiatry*, 63(5), pp. 530-538.
- Radloff L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ying Psychological Measurement*, 1, pp. 385-401.
- Steenland K., Karnes C., Seals R, Carnevale C., Hermida A. and Levey A., 2012, "Late-life depression as a risk factor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or Alzheimer's disease in 30 US Alzheimer's disease centers",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31(2), pp. 265-275.
- Wilson R., Mendes De Leon C., Bennett D., Bienias J. and Evans D., 2004, "Depressive symptoms and cognitive decline in a community popula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 Psychiatry*, 75(1), pp. 126-129.
- 중앙치매센터, 2018,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 보도자료.(<https://www.nid.or.kr/info>)
- 질병관리청, 2021, "알림 자료", 2021.06.10.(<http://www.kdca.go.kr/npt>)
- 통계청, 2019,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2019.
- 한국고용정보원, 2019, 『2018년 제7차 고령화 연구패널조사 설문지』,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팀.



# A Study on the Effect of Depression on Cognitive Function in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

Kang, HeeJung, Seoul Social Welfare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pression on cognitive function in the elderly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067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in the KLoSA(2018). Data analysis was statistically processed with the SPSS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in the elderly had a negative effect on cognitive function.

Second, in the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social activity capital and acquaintance capital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ognitive function, and family capital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gnitive function.

Third, it was found that depression\*social activity capital and depression\*cognitive capital had a positive regulatory effect on popularity function. Depression\*family capital was found to have no effect on cognitive func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it is important to manage depression in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fully consider depression in programs or counseling related to the elderly. The fact that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depression negatively affects the area of cognition should focus on identifying the source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properly alleviating it. Next,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cognitive function by reducing the influence of depression.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elderly's social capital should be socially recognized and more active in the activities and social capital preparation of the elderly. Specifically, in order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social active capital and acquaintance capital, it is important to form appropriate counseling and relationships to prevent them from being tied to family capital, starting with expanding social infrastructure, which is the only alternative.

Keyword : Elderly Depression, Cognitive Function, Social Capital, KLoSA,

접 수 일 : 2023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3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3년 5월 13일



##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복지 갈등에 관한 연구\*

김사언\*\*

임해영\*\*\*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복지 갈등과 관련된 심리적, 사회문화적 맥락들을 파악하여 이들의 가정복지 내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차원의 함의와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Yin의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사례 내, 사례 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로, 결혼이주하게 된 주요 내용, 가정폭력이 나타나게 된 전후 배경들을 중심으로 구술 생애사 형태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사례 간 분석에서는 ‘새 인생을 위해 선택한 결혼 이주’, ‘국제결혼 정보업체의 속임수에 넘어감’, ‘결혼 환상과 결혼 현실의 괴리’,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폭력의 징후들’, ‘날벼락 같은 폭력의 시작’, ‘점점 더 잔인해지는 폭력’,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과 마음’, ‘자원의 부족’, ‘생존을 위한 필사의 도움 요청’, ‘되찾은 안정감 속에서 새 출발 준비하기’, ‘이혼과 가정복지관 갈림길에서 서성대기’, ‘이혼이란 선택지 결정’, ‘가정복지관 선택지에 흔들림’, ‘가정과 자아실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욕망’ 등 1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논의점과 제언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가정복지 갈등, 질적 사례연구

\* 이 논문은 김사언의 2022년 박사학위논문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복지 갈등에 관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교신저자(hae0629@hanmail.net),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 I. 서론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가정폭력의 문제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42.1%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여기에는 신체적, 심리 언어적, 성적 학대는 물론, 건강상 불이익, 활동의 자유 구속, 고국과의 단절 강요, 경제적 학대 등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들은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정신건강의 관계(이한동, 2007; 김민정, 2011)를 분석한 연구,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와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김응지, 2012; 신은식, 2012; 장순남, 2011)을 제시한 연구,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립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임금빈, 2015)등이 수행되어 왔다. 또한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분석한 국내의 질적연구(고기숙, 2010; 고기숙·정미경, 2012; 김태량, 2019)에서는 가정폭력피해 대처 과정과 보호시설 입소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드러내는 의미들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수행된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들은 이들의 정신건강, 사회적 자립, 대처 능력 향상, 시설 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과 지지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인지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새롭게 꾸리는 한국 내 가정생활의 갈등적 삶에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나아가 위에서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위협적인 폭력에 가정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가정복귀를 갈등하는 것을 분석한 국내연구는 매우 희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가정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떠한 이유로 가정복귀를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복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지, 무엇이 이들을 고민하게 하는지,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는 어떠한 사회복지적 지지와 지원을 희망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여성쉼터에서 생활하다 퇴소하여 가정복귀를 고민하거나 혹은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 내지 배우자 가족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가정복귀를 갈등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

정복귀 갈등 경험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정복귀 갈등과 관련된 심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의미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어떤 복지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에 노출되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복귀와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해자인 배우자 및 그 가족 그리고 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과 기타 가족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일지를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은 가정복귀 갈등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의 개념과 현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에서는 가정폭력이란 가정 내의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법제처, 202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 2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혼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등의 결혼생활 혹은 별거·이혼의 상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따라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은 가정 내 구성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여성결혼이민자로 개념화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피해 경험을 조사대상자 9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42.1%(387명)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심한 욕설 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41.3%, 폭력 위협 3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폭력 유형별로 세분화해 보면 심리언어적 학대 영역에서는 ‘심한 욕설을 들었다’가 81.1%, ‘본국에 대한 모욕적인 말의 경험’이 26%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행위 강요’ 27.9%,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언동’ 24.5% 등 ‘성적 학대를 경험하였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국과의 단절 강요

행위로 ‘본국의 방문’과 ‘송금 방해’가 각각 26.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적 학대로는 ‘금전적 방해’가 33.3%, ‘과도한 집안일 시키기’가 27.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목적으로 1997년 12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법제처, 2021). 또한 이 법은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운영, 가정폭력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등 가정폭력의 예방·방지과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은 가해자인 배우자로부터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여성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6월 현재, 전국 65개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1,094명의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다(여성가족부, 2020). 나아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의 경우, 세부적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보호시설, 그룹홈, 자활지원센터가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2020년 11월 현재 전국의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는 8개가 운영 중이며(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2019년 7월 현재 32개의 보호시설, 이주여성쉼터 28개소, 그룹홈 3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위에서 살펴본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성들이 상당히 심각한 가정폭력피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여성들과 자녀들을 위한 지원기관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가정폭력 경험 및 이러한 폭력적 경험 이후에 이들이 드러내는 심리사회적 갈등과 욕구는 상당히 클 것으로 유추되어 진다. 이 점에서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결혼이주여성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한국 드라마에 대한 화려한 이미지를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박동숙, 2019). 때문에 이들은 한국 입국 이후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서의 간극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결혼생활은 본국과는 180도 다른 한국적인 생활방식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입국 초기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요소들은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한국어로의 의사소통, 부부관계 및 대인관계, 자녀 양육 및 교육, 생계,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들 수 있다(양순미·정현숙, 2006; 고기숙, 2010; 최연숙, 2016; 박동숙, 2019).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이 겪게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하게 된다. 때문에, 배우자 및 시댁 식구들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부부 및 가족 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태량, 2019). 둘째,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올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의 주요 유입 형태가 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임신 출산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먼저 직면하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이러한 급작스런 생활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양육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박동숙, 2019). 세 번째, 부부관계 및 대인관계의 문제이다.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는 성장환경, 성격특성, 가치관 등의 차이로 부부갈등을 경험하기 마련이다(최규련, 2009), 하지만 출신 국적이 다른 다문화 부부의 경우, 문화적 이질성에 따른 부부간 불만족과 갈등을 더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문정화, 2017). 이에 대한 근거로 2018년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는 자녀 문제(25.0%), 언어소통의 어려움(23.1%), 문화적 차이(19.1%), 배우자의 음주 문제(10.6%),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9.7%) 등이 지목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넷째,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인 2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0~

200만원 미만은 21.5%, 100만원 미만은 9.1%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 가구의 소득을 내국인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2015년 372만 원과 2018년(3분기)의 389만 원, 2019년(4분기)의 477만 원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9). 다섯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이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은 71.22점으로 2015년 대비 3.59점 상승했으나 성인은 1.14점 하락한 52.81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는 청소년층의 다문화 수용성에 비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떨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9).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요소들로 인해, 이들이 경험하는 결혼생활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쉽지 않은 결혼생활과 이로 인한 불만족감이 부부 및 가족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가정폭력의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정폭력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정폭력은 이들의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생활 속에서 실제 가정폭력을 어떻게 경험하였고, 이것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맥락들이 무엇이며, 이들이 이혼 후 가정복귀를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III. 연구방법

#### 1. 질적 사례연구

질적 사례연구는 연구 현상에 대한 분석단위를 설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Yin, 2009). 예컨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 내에서 분석할 단위를 초점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가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가정복귀 갈등 경험을 연구한다고 할 때, 연구 현상은 가정폭력피해 경험이고, 이러한 경험 안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인가가 분석단위가 된다. Yin(2009, 232-268)은 질적 사례연구의 분석기법을 다섯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 패턴 매칭으로써 연구자가 예상했던 주제의 패턴과 실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패턴을 상호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도출한 두 개 이상의 범주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이것을 하나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키는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설명하기는 사례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기 위해 사례연구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그 현상에 대해 예측했던 인과적 연결 관계가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분석기법은 시계열 분석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패턴을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시계열 분석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들의 관계에 대해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개의 사건 사이에 시간적으로 연결된 고리들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넷째, 논리모델로서 사건들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규정하고 조작화 하는 분석기법이다. 이것은 원인-결과-원인-결과의 패턴을 반복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유용하며, 패턴 매칭과 시계열 분석이 동시에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분석기법은 사례통합이다. 이 기법은 다중사례연구에 주로 해당되며, 개별적인 사례연구를 조합하거나 동일한 연구가 여러 개의 사례로 구성된 경우 사례들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Yin(2009)이 제시한 위 5가지 분석기법 중 패턴 매칭, 설명하기, 시계열 분석, 사례통합의 분석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가정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에게 그러한 폭력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했는가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두 개 이상의 사례들 사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사례 간 공통점을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로 도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범주들이 시·공간적 경과에 따라 어떤 의미구조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폭력을 피해 이주여성쉼터에서 생활하다 퇴소하여 가정복귀에 대해 고민하거나, 혹은 가정복귀 이후에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한 지 5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결혼 후 한국 생활 5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을 선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들이 5년 이상의 장기적인 한국 생활 속에서 자신의 결혼생활과 가정폭력피해, 가정복귀 갈등에 대해 좀 더 풍부하게 구술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 5년 이상의 한국 체류 기간 속에서 이들이 한국어 역량을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

다. 이렇게 선정된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출신국	출생 연도	학력	결혼 연도	자녀	쉼터 입소	쉼터 퇴소	결혼 상태 유지
A	베트남	1988	중졸	2004	아들1	2008년	2018년	이혼
B	필리핀	1979	대학중퇴	2004	아들2	2012년	2017년	이혼
C	필리핀	1976	전문대졸	2010	딸1	2014년	2018년	이혼
D	캄보디아	1991	고졸	2010	딸1	2014년	2015년	결혼 유지
E	필리핀	1976	고졸	1998	딸1	2014년	2017년	이혼
F	베트남	1994	고졸	2012	딸1	2013년	2014년	이혼

### 3.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결혼 후 한국 생활 5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이면서, 가정폭력피해로 인해 쉼터 이용 후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모집은 본 연구자가 이주민여성을 위한 바자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시 위치 3개 이주민여성 쉼터에 연구자가 직접 전화하여 본 연구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다음 쉼터 종사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별도의 연구 참여자 모집문건을 해당 쉼터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다. 이를 통해 쉼터에 거주하거나 퇴소했던 이주여성 중 본 연구 참여를 원하는 연구 참여자가 모집문건에 게재된 연구자의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쉼터 종사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연구자에게 연락해 온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자와 만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만남을 가졌다. 면담방식은 연구 참여자와 상호작용에 따라 질문을 구성해나가는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1:1 면담을, 인터뷰 시간은 1회당 90분 내외로 2회 정도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적 이야기와 관련되어 비밀보장이 될 수 있는 상담실 혹은 독립적 공간이

확보된 장소를 대여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였으며, 이렇게 녹음된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원자료로 활용되었다.

## 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Yin(2009)이 제시한 질적 사례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복귀 갈등에 대한 유의미한 의미들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술적 사례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Yin(2009)의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지만, Bryman과 Bergess(1994)가 제시한 사례 내, 사례 간 분석의 틀을 함께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내, 사례 간 분석과정에서 본 연구는 Yin(2009)이 제시한 패턴 매칭, 설명하기, 시계열, 사례통합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패턴 매칭의 경우, 사례 간 분석에서 개념, 하위주제 간의 지속적 비교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상위주제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명하기와 시계열 분석은 이렇게 도출된 사례 간 하위주제와 상위주제를 시공간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주요 의미가 변화되는지를 포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례통합은 개별적 사례 내, 사례 간 분석을 통해, 개별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적 의미구조들을 서사화된 형태로 구성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복귀 갈등 경험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사례 내 분석에서는, 이 여성들이 결혼 이주하게 된 삶의 배경, 가정폭력에 노출된 상황, 쉼터 입소 이유, 가정복귀 갈등 경험 등을 중심으로 생애 맥락에 따라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별로 나타나는 가정복귀 갈등 경험의 핵심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례 간 분석에서는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복귀 갈등 경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 하위주제, 상위주제들을 도출하고, 상위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이해와 해석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하였다.

## 4. 연구의 엄격성

질적연구의 엄격성은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와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Yin(2009)은 사례연구의 엄격성을 “구성 타당성,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신뢰성”의 4가지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구성 타당성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추출하였는가에 해당되는 기준이다. Yin(2009)은 구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다수의 연구 참여자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원 사용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에게 면담한 내용을 보여주어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내적 타당성은 어떠한 현상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것과 사건에 대한 추론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셋째, 외적 타당성은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분석적 일반화에 해당된다. 이것은 곧 분석의 방법이 보편적인가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신뢰성은 동일한 연구에 있어서 오류와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절차를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Yin(2009)이 제시한 구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뷰, 전사 자료, 기록물 수집 등과 같은 자료 수집의 다원화 전략을 활용하였다.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패턴 매칭, 논리 모형, 설명하기, 시계열분석, 사례 통합하기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외적 타당성은 Yin(2009)이 제시한 5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에 대해 동료 연구자 및 전문 연구자의 점검 및 자문을 구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자료 수집에서부터 결과 분석까지의 절차와 참고한 자료 목록을 모두 목록화하였다.

## 5.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쉼터 생활을 하다가 가정복귀에 대해 고민하거나, 혹은 가정복귀 이후에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만큼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보호는 본 연구에서 지켜져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내 여성들의 소통창구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쉼터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이주여성들에게 연구자는 본 연구의 개요를 안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녹취 및 전사, 전사 자료의 연구 결과 반영에 있어 익명 처리할 것과, 면담이 진행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연구 참여자가 면담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자신의 면담자료가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연구 참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연구 동의서에 상호 서명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개인 정보(출신국, 출생연도, 학력, 결혼 연도, 자녀, 쉼터 입·퇴소)와 녹음 파일은 다

른 사람들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연구자의 개인 노트북에 연구 참여자별 개별적 암호화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본 연구가 종료되는 2022년 2월 28일 이후 모든 자료는 폐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매회 인터뷰에 대해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사례 내 분석

#### 1) 연구 참여자 1

참여자 1의 경우 큰 키와 예쁘장한 외모를 가진 관계로 빠른 시간 안에 한국 남성의 선택을 받게 된다. 이후 그녀는 자신을 선택한 한국 남성과 하루 이들의 짧은 데이트 후 결혼식을 마치고 정식 부부가 된다. 이처럼 빠르게 치루어진 결혼식 이후 그녀의 남편은 6개월 후 그녀를 데리러 오기로 약속하고 한국으로 떠나게 된다. 그리고 호치민에 남은 참여자 1은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남편을 기다리기로 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6개월 동안 가르쳐 준다는 결혼 중개업소의 약속은 한 달 정도밖에 지켜지지 않는다. 또한 한국 남편이 지불한 비용을 받아, 결혼식 예물로 그녀가 받기로 한 금붙이도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결혼중개업체의 사기행각을 주변인들로부터 여러 번 듣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결혼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남편의 폭력은 한국 입국 한 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첫 폭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작되었다. 요리를 하다 갑자기 짜증을 내고 그녀에게 손찌검을 하였고,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중고 자동차 판매 영업이 잘 안되는 날이거나 밖에서 무엇인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면, 그날은 참여자 1에게 난데없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였다. 그 와중에 참여자 1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상태에서도 폭력은 계속되게 된다. 이러한 남편의 폭력이 더욱 더 빈번해지고, 강도도 점차 심해지면서, 참여자 1은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도주를 우려한 남편은 그녀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모두 빼앗아 가 버렸고, 수중에는 돈 한 톨 없어서 그녀는 오갈 데 없는 고립된 처지로 살아가게 된다.

그녀에게 전남편은 너무나도 두렵고 원망스러운 존재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서 용서한 지 오래이다. 현재 그녀의 전남편은 자신의 아들과 가끔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참여자 1이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배려를 가끔 하기도 한다. 얼마 전 그녀는 전남편으로부터 집에 들어와 함께 살자는 제의를 받기도 하였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온전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녀는 전남편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13년 동안 살아오면서 기댈 곳 없는 섬과 같은 존재로 살아온 참여자 1은 배우자의 든든한 그늘 아래 기대어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존재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녀에게 전남편과의 재결합, 그리고 다시 가정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여전히 숙제 같은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 2)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2는 2021년 5월 인터뷰 당시 42세의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다. 참여자 2는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자신을 낳은 홀어머니와 함께 살다, 그녀가 5살 되던 해 어머니가 결혼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된다. 결혼한 엄마는 아들을 낳았는데 참여자 2와 남동생은 이복 남매였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며 자라게 된다. 이후 참여자 2는 고등학교 때, 마닐라 근처에 사는 이모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간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그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대학 수업을 들으며 바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된다. 그러던 중 다니던 택배회사 아르바이트 급여가 많아지자 더 많은 돈을 벌 생각에 대학 4년을 다 마치지 않은 채 자퇴하게 된다. 전남편을 알게 된 그 택배회사는 외국으로 물건들을 보냈었는데 거기에는 한국 고객이 많이 있었다. 2002년 단골 고객이었던 한국 사람이 필리핀으로 놀러 온 그의 친구를 택배회사로 데리고 오게 된다. 그 친구가 바로 참여자 2의 전남편이다. 참여자 2는 전남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서로 호감을 갖게 된다. 전남편이 필리핀에 머무르는 동안 둘은 계속 만나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깊이 느끼게 된다. 3주간의 짧은 만남을 남긴 채, 두 사람은 온라인 메시지를 이용하여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사진도 주고받으며 1년 6개월 동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다. 드디어 참여자 2는 2004년 6월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공항에 시부모님과 남편이 마중 나와 참여자 2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남편은 외동아들로 경상도 작은 농촌지역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입국 초기, 필리핀 도시 생활에 익숙한 참여자 2에게 한국 농촌지역에서의 삶은 매우 낯설게 다가왔고, 더욱이 시부모와 함께 산다

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혼 초기 시부모와 남편 모두 참여자 2를 잘 대해 주었고, 그녀의 바람대로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한국어를 잘못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이미 마을에 필리핀에서 온 결혼 이주여성들이 몇 명 살고 있어 크게 외롭지는 않았다. 그렇게 참여자 2는 시부모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연년생의 두 아들을 낳았고, 남편은 비록 가정적이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 2년 정도까지는 아이들의 목욕을 도맡아 시켜줄 만큼 자상함도 있었다.

남편의 폭력이 처음 시작된 것은 둘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가정 경제를 어느 정도 꾸려 나갈 수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조심스럽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참여자 2도 남편의 끼니를 챙기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일로 화가 난 남편은 처음으로 참여자 2에게 손찌검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폭력은 아무 이유도 없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어느 날은 아들이 유치원 수학 문제를 물어보았는데, 지도가 잘되지 않는지 짜증을 내다가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참여자 2도 폭행을 당하게 된다. 더욱이 남편은 동네 사람들이 참여자 2를 칭찬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며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둘렀다. 참여자 2는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음을 시부모에게 알리고 집을 나가기로 결정한다.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다녀온 적이 있는 친구가 경기도 지역 쉼터를 소개해 주었고, 그녀는 수녀님과의 상담을 통해 이후 이혼을 준비하게 된다. 이혼 후 남편은 1년 정도는 양육비를 잘 보내주었고, 참여자 2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몇 년을 남편과 떨어져 아이들과 지내 온 참여자 2는 아이 없이 홀로 살고 있는 친이모가 그녀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해 와 현재는 이모집 근처에서 식물 관리하는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 참여자 2의 전남편은 2년 전부터 그녀에게 연락을 해와 자신의 잘못을 빌면서,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자는 제안을 수차례 해 오고 있다. 시간이 약이라고 참여자 B는 몇 년 사이 성격이 많이 온순해진 것 같아 보이는 전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약간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전남편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녀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 3) 연구 참여자 3

연구 참여자 3은 2021년 6월 인터뷰 당시 45세의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다. 9남매 중의 7번째로 태어난 그녀의 가정은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다. 그래서 참여자 C는 2년제 전문대학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였지만, 비교적 직장을 구하기 쉬운 caregiver(간병인) 수업을 듣고 병원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던 34세 되던 해 친한 친구에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그 친구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국인을 소개받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참여자 3은 호기심에 친구와 함께 결혼정보업체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녀는 병원에 근무한다는 직업적 조건을 마음에 들어하는 참여자 3의 남편과 시어머니의 선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참여자 3이 한국에 가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그녀는 남편과 10살 차이가 나고, 이번이 두 번째 결혼으로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15세 되는 딸이 한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그때 당시 이미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결혼 5개월 만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한국에 입국하여서는 시부모집에서 남편과 남편의 동생 그리고 전처의 딸과 함께 생활하였다. 시어머니는 참여자 3의 임신을 좋아하지도 않아, 그녀가 자궁에서 피가 보여 병원에 가기를 원하였으나 참여자 3의 말을 못 알아듣는 듯 데려가 주지도 않았다. 결혼 초기 참여자 3에게 호의적이던 시아버지도 점차 시어머니처럼 참여자 3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부모의 폭력적인 행동에도 소극적인 남편은 참여자 3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였으며, 모든 일을 어머니가 결정하는 데로 따를 뿐이었다.

한편 참여자 3의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결혼 2년 정도 시기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 도형을 알게 되어 휴대폰을 열어 보았다. 거기에는 숫 팬티를 입은 다른 여자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이것을 본 그녀는 남편의 성적 취향이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18개월 된 딸아이에게 하는 행동이 성적으로 이상한 행동처럼 느껴져 남편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렇게 계속 의심이 쌓여 가던 중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참여자 3은 남편이 딸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남편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문제로 그녀의 남편은 참여자 3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 이 사건으로 참여자 3은 그녀의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집에 왔을 때 남편



은 아이의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참여자 3에게 혼자 집을 나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다음 날 쉼터로 들어갔다. 참여자 3의 딸은 6개월 동안 해바라기 센터에 다니며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그림을 보며 아빠, 아빠를 불렀고, 이 과정은 모두 CCTV에 녹화되어 이혼 재판에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재판에서 참여자 3은 양육권을 갖고 위자료와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아직까지 딸이 어린 나이라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아이의 학년이 높아갈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2년 후면 생활하는 모자원에서 나가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그녀의 시부모는 그녀를 가끔 찾아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전남편과 합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다. 나아가 참여자 3이 전남편과 합치기만 하면 아이 교육비 지원은 물론, 그녀가 남편과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얻어 주겠다고 그녀를 회유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참여자 3은 자신의 딸아이를 위해 시부모의 권유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 나아가 남편이 딸아이를 성추행한 장면을 자신이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녀의 의심만으로 이혼이라는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가 가끔 밀려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딸아이에게 전남편이 혹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수 있는 두려운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힘든 삶이겠지만 전남편 및 그 가족과 상관없이 그녀 스스로 자립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4) 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4는 2021년 5월 인터뷰 당시 30세의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다. 2년 1남의 장녀로, 그녀의 부모님은 시골의 작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생계를 이어나갔다. 참여자 4는 그녀가 10대 시절부터 K-Pop의 열기가 캄보디아 시골 마을까지 널리 퍼지게 되고,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게 되면서,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게 된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동네 지인의 친척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캄보디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형편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참여자 4도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멋진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자신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된다. 참여자 4는 그녀가 21살 되던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결혼중개업소를 찾게 된다. 그곳에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캄보디아로 온 남편과 남편의 아버지, 이모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그녀의 남편 가족이 참여자 4를 선택하여 결혼이 성사하게 된다.

참여자 4가 한국에 가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 당시 35세였던 남편은 참여자 4와의 결혼이 벌써 세 번째 결혼이라는 것과 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다. 참여자 4의 부모는 큰딸이 세 번째 결혼하는 남자의 부인이 된다는 것과, 그들의 곁에서 멀리 떠난다는 것을 많이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참여자 4는 결혼과 함께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리라는 기대와 함께 그녀의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한 채 2010년 5월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다. 결혼 초기 참여자 4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하며 한국 음식과 집안일들을 배우고자 노력하였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참여자 4의 노력을 칭찬하기보다 작은 실수에도 큰소리로 야단을 치는 것이 다반사였다. 특히 그녀는 한국 입국 초기 한국어를 몰라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하는 대부분의 말이 욕설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시부모의 큰소리가 무서웠지만, 남편은 그녀에게 잘 대해 주었고, 얼마 되지 않아 아이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임신 중에도 시부모의 야단이나 언성은 계속되었고, 이런 시부모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참여자 4는 입을만한 옷이 없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도 공장에 다니게 되었다. 그녀의 시부모도 참여자 4가 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좋아하였다. 특히 그녀의 시부모는 결혼 당시 참여자 4를 위해 8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썼다고 생색을 내었다. 그래서 참여자 4가 월급을 타면 시아버지가 그 돈 모두를 가져가 버렸고, 그녀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아버지의 폭언이 점점 심해지더니 화를 내는 것을 넘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정을 공장 사람들도 점차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는 시아버지를 말리거나, 그녀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시아버지의 폭력을 일부러 못 본척 회피하거나, 방치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아침, 참여자 4는 시아버지의 욕설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출근을 해야 했는데, 이를 보다 못한 공장의 지인이 그녀를 ○○다문화센터에 데려다 주었다. 그 날 상담 후 그녀는 서울에 있는 쉼터로 바로 옮겨 가게 되었다. 아이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좀 있다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참여자 4는 딸을 시골에 둔 채, 자신의 소지품 하나 챙기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된 쉼터 생활은 시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지만, 아이를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는 시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 딸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강행할 수 밖에는 없었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녀는 호텔의 룸메이드 일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혼 법정에서 만난 남편은 시아버지와 항상 동행하였는데, 그는 아무 말이 없었고, 시아버지는 자신의 화를 못 이겨 참여자 4의 변호인에게까지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1년여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시아버지는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해져 이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배상하여야 함을 뒤늦게 알고, 참여자 4를 회유하며 이혼만은 막아보려고 애썼다. 결국 참여자 4는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녀가 이혼을 결정할 경우 딸과 단둘이 꾸려야 할 삶이 참여자 4 스스로 두렵기도 하였고, 아이의 성장에도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참여자 4는 쉼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6년째가 되었고, 모든 생활은 쉼터에 입소하기 전 생활로 되돌아가졌다. 참여자 4와 남편은 각자가 받은 월급을 현금으로 찾아 시아버지에게 준다. 예전에는 통장으로 이체했었는데, 재판에서 계좌이체 했던 통장이 중요한 증거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돈을 주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낸다. 시아버지가 시골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어도, 집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야 할 때면,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야 살 수가 있다. 따로 사는 남편의 형과 남동생이 가끔 집으로 오는데, 항상 빈손으로 와서 밥을 먹고, 집에 갈 때는 농사지은 작물이며, 집에 있는 반찬을 다 싸 가져가곤 한다. 참여자 4가 이런 상황이 답답하여 남편에게 가끔 이야기하면 ‘그냥 나가, 이혼하고 싶으면 네 맘대로 해’ 라고 오히려 시댁 식구 편을 들어 그녀의 속상한 마음만 더욱 쌓여져 간다. 그래서 그녀는 오직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가정복귀가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잘한 선택인가에 대한 후회가 들기도 한다.

## 5) 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 5는 2021년 6월 인터뷰 당시 45세의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다. 참여자 5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마닐라로 이사하여,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자녀들을 키우게 된다. 그녀의 큰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일을 하러 떠났고, 다른 두 언니와 참여자 5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다 참여자 5의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한국 남성을 사귀고 싶은 마음에 그 남성과 잦은 만남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자 5의 친구는 참여자 5에게 동행하자고 하여, 그 한국

남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셋이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한국 남성은 참여자 5가 좋다고 하였고, 그렇게 참여자 5의 집에 눌러 온 한국 남성은 막무가내로 그녀의 어머니에게 참여자 5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은 돈이 많으니 어머니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사 줄 것이라고 참여자 5 그녀 가족의 환심을 사기도 하였다. 그 한국 남성이 바로 참여자 5의 전남편이다. 참여자 5의 전남편은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 필리핀에 왔다고 했는데, 필리핀어를 아주 잘 구사하여 참여자 5의 어머니와는 필리핀어로 서로 소통을 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5의 어머니는 그의 말에 현혹되었고, 그 뒤부터 전남편은 참여자 5와 결혼하기도 전에 그녀의 집에 편하게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참여자 5가 이상한 느낌에 일어나 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결국 그녀는 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너무 놀라 우는 참여자 5에게 어머니는 ‘돈 있는 사람이니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란다’며 참여자 5를 달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여자 5는 두 번의 성폭력 속에서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 5는 그 남자의 성격이 좋지 않고 때로는 무섭다고 생각하였지만, 어머니의 강요와 임신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필리핀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참여자 5의 전남편은 잠시 한국에 다녀오겠다며 떠났고,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 한국에 사는 형의 부인이 그녀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녀가 알려준 사실은 남편이 자동차 사고를 내어 상대방을 사망하게 하였고, 이 문제로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한국 감옥에 있는 동안 참여자 5는 딸아이를 출산하였다. 참여자 5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고,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였는데, 한국으로 떠난지 약 1년여 만에 남편은 필리핀으로 돌아오게 된다. 참여자 5의 이모와 언니들도 아기가 있으니 함께 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시골에 있는 이모집에서 남편의 형과 형수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한국으로 돌아온 전남편은 일을 하다가 말다가 하였고, 결국 경제활동을 위해 참여자 5가 집 근처의 옷 만드는 공장에 다니게 되었다. 남편은 참여자 5가 아무 것도 모르니 핸드폰, 먹는 거 다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며 통장과 카드를 모두 가져갔고, 월급날이면 5만 원만 참여자 5에게 주었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시작된 전남편의 폭력은 이후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밥을 먹는 중에도 참여자 5나 딸아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손발로 때리기도 하고, 밥상을 엮기도 하였다. 참여자 5는 맞고 산다는 것이 수치스러워 차마 공장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였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어디에서 상담을 받는 정보도 전혀 몰랐다. 그래서 참여자 5는 공장에 다니며 때로는 밤 12시까지 늦은

잔업을 하면서 돈만 벌었다. 그러다 그녀는 남편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면서 필리핀에 사는 여성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참여자 5는 폭력적인 남편을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기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2014년 어느 날 참여자 5는 빨래방에 가기 위해 딸과 함께 집을 나섰고, 저녁 10시가 넘자, 참여자 5의 남편이 딸에게 전화를 해 ‘엄마 어디 있어?’라고 묻게 된다. 저녁 늦은 시간에 참여자 5와 딸이 집에 없는 것에 대해 그녀의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그런 남편의 위협에 참여자 5는 집에 들어가면 딸과 함께 정말 죽을 것 같아 회사의 이사님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 이사님의 신고로 참여자 5와 딸은 쉼터로 들어가게 된다. 이후 남편은 미친 듯이 참여자 5와 딸을 찾았지만, 참여자 5는 쉼터의 도움으로 차츰 안정을 찾은 후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된다. 그리고 딸도 비밀리에 학교를 옮기고,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 외상들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 참여자 5는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지 16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자신과 아이가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자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집을 나온 지 3년 만에 쉼터의 도움으로 이혼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전남편은 자신과 딸에게 여러 번 용서를 구하였고, 남편의 형님 부부가 그녀를 찾아와 여러 번 사과하기도 하면서 그녀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5의 딸은 그녀가 전남편과 이혼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였고, 아버지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이혼으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혼 후에도 전남편의 형님 부부는 그녀의 안부를 묻고, 가끔 그녀와 딸아이를 위한 선물과 용돈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참여자 5는 여전히 타국일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준 가족의 끈을 놓아 버리는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그것이 그녀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한 갈등의 이유이기도 하였다.

## 6)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6은 2021년 7월 인터뷰 당시 27세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다. 그녀는 3년 1남의 장녀로 남동생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다. 부모님은 한국의 치킨가게와 같은 작은 가게에서 술안주나 맥주, 음료수 등을 함께 파는 일을 하였다. 참여자 6은 고등학교 때까지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대학에 함께 진학하기를 원하였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하였다. 그래서 남자친구와는 점차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게 된다. 이 일이 마음의

상처가 된 참여자 6은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때 친구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한국 사람을 만나볼 것을 권유하였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은 참여자 6은 재미 삼아 자신의 사진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런데 결혼정보업체 직원이 계속 연락을 해와 남자 쪽에서 참여자 6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만나볼 것을 사정하여 한국 남자를 만나 짧은 데이트를 한 후,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2012년 두 번째 만남이 있는 지 이틀 만에 결혼식이 치루어졌고, 서류를 준비하여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한국으로 오게 된다. 참여자 6과 남편과의 나이는 20살 차이로 결혼 당시에는 나이 차이가 많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남편은 한국의 가장 큰 도시에서 자동차 수리 일을 하였고, 시부모는 경기도 소도시에서 따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임신이 되었다. 입국 2개월간은 아무 문제없이 지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참여자 6은 남편에게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연인으로 지내 온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여자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그녀의 남편은 그 여자를 사촌누나라고 참여자 6에게 소개하였다. 그런데 참여자 6과 남편이 놀러 가기로 하면, 그 사촌누나라는 여자와 함께 가고, 밖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셋이서 함께 먹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참여자 6은 무언인가 의심쩍은 생각이 들게 된다. 그 여자는 참여자 6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집 문을 노크했을 때, 열어주지 않으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등 너무나 자유롭게 왕래하였고, 남편의 차를 그 여자는 마음대로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 결국 참여자 6은 두 사람의 사이가 내연 사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참여자 6은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맞느냐'고 오히려 그녀를 의심하였다. 참여자 6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여자가 자신의 집으로 와서 '뱃속의 아이가 네 남편의 아이가 맞느냐'며 추궁하듯이 물었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냐'고 그녀를 다그치기도 하였다. 참여자 6은 한국에 의지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기에 남편이 그 여자랑 그만 헤어지고 그녀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서 왜 베트남까지 와서 자신과 결혼했는지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참여자 6을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위협했으며, 용돈도 주지 않아 집에 있는 쌀로 짓는 밥 외의 다른 음식은 사다 먹을 수도 없었다. 그러다 너무 힘이 들어 그녀는 경찰에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 베트남에서 3개월간 한글 공부를 할 때, 긴급상태일 때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집 주소도 몰랐고,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도와주세요'라는 말뿐이었다. 결국 경찰이 찾아오

고, 그녀는 쉼터로 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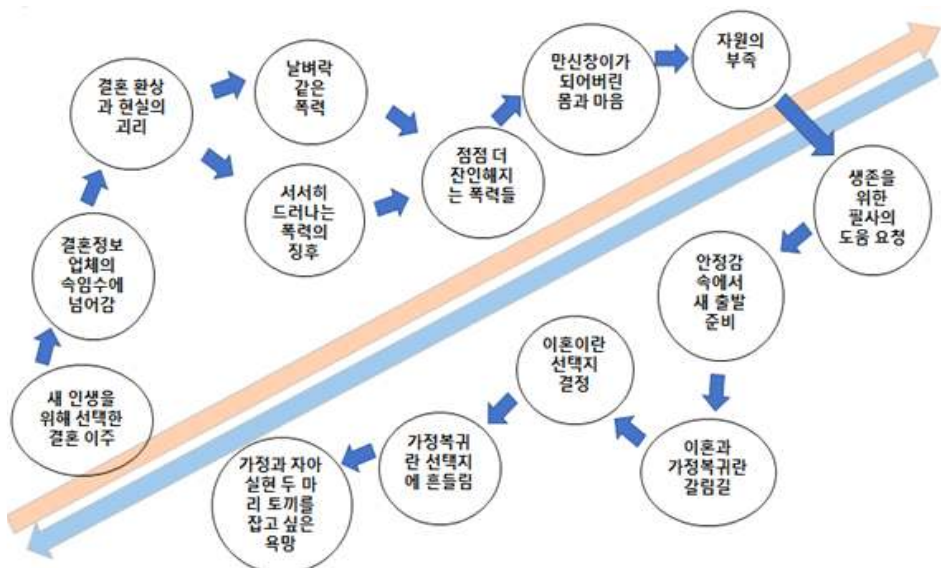
2013년 3월, 임신 5개월 상태에서 쉼터로 입소한 참여자 6은 뱃속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비로소 공급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을 위협하는 남편과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벗어나 오랜만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다. 참여자 6이 쉼터에 들어가자 그녀의 남편은 곧바로 이혼을 신청하였다. 참여자 6도 자신을 너무도 처참하게 만든 남편과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쉼터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아기 낳을 때까지 이혼을 미루고 친자 확인을 하자는 의견을 주었고, 그녀는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남편의 아기라는 걸 증명해 주고 싶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혼하기 싫다고 계속 미루다가, 딸아이를 낳은 지 2개월 후에 친자 확인 검사를 하였고, 남편의 아이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참여자 6이 임신한 아이를 자기 아이가 아니고, 집을 가출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신청했던 남편은 이번에는 자기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이혼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러면서 참여자 6은 2차 쉼터로 옮겨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결국 남편과는 2015년에야 이혼이 결정되게 된다. 위자료와 매월 양육비를 받고 참여자 6이 아기를 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다. 그리고 남편이 한 달에 2번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이 허락된다. 이혼 후 남편은 딸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아이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또한 전남편이 명절날이나 시댁 행사에 딸아이를 꼭 데리고 다니고, 시부모도 손녀딸을 무척이나 예뻐한다. 특히 타국인 한국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참여자 6에게 명절 음식과 약간의 용돈을 보내주며 그녀를 잘 대해 주기도 한다. 참여자 6은 결혼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남편 아내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도 전에 자신을 극한의 상태로 방치하고, 내연녀와 함께 자신을 겁박한 남편을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결혼에 실패한 채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며, 자신의 아이와 함께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꾸려도 보고 싶은 양가감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전남편의 제안은 자신도 모르게 한쪽 귀를 열어두게 되는 유혹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 2. 사례 간 분석

### 1) 범주에 대한 매트릭스 모형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복귀 갈등 범주는 사·공간적 흐름에 따라 14가지 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새 인생을 위해 선택

한 결혼 이주,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속임수에 넘어감', '결혼 환상과 결혼 현실의 괴리',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폭력의 징후들', '날벼락 같은 폭력의 시작', '점점 더 잔인해지는 폭력',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과 마음', '자원의 부족', '생존을 위한 필사의 도움 요청', '되찾은 안정감 속에서 새 출발준비하기', '이혼과 가정복귀란 갈림길에서 서성대기', '이혼이란 선택지 결정', '가정복귀란 선택지에 흔들림', '가정과 자아실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욕망'이다. 이 14가지 범주를 매트릭스 형태로 도식화해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정폭력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복귀 갈등의 매트릭스 모형

## 2) 범주내용 기술

### (1) 새 인생을 위해 선택한 결혼이주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일상화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로부터 결혼이주를 선택해온 여성들이다. 이로 인해 이 여성들은 아시아의 신흥부국으로 떠오른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사는 국가로 인식하였다. 특히 이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와 가요 같은 한류의 영향으로 매너 좋고 신사다운 한국 남성에 대한 환상적 기대 속에서 결혼이주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남자와의 국제결혼은 ‘새 인생을 위해 선택한 결혼이주’란 상위범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범주 안에는 ‘잘사는 나라 한국에 갈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한 결혼이주’, ‘새로운 인생의 날개를 달아줄 것 같은 한국 남자’, ‘우연한 만남이 운명적 만남으로’라는 세 가지 하위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드라마에서 우리 베트남어로 통역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에서처럼 잘해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막상 한국에)와서 (그렇지 않으니까) 후회했어요(참여자 1).

## (2) 결혼정보업체의 속임수에 넘어감

“외국인 신부 팝니다”라는 문구는 과거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내 건 슬로건 중 하나이다(한겨레신문, 2019). 이는 이윤만을 우선시하는 결혼중개업체들이 사실상 매매혼을 주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구이기도 하다. 예컨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어떻게든 결혼이 성사되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일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매매혼으로 신부를 거래하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들의 사탕발림에 현혹된 것을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속임수에 넘어감’이란 상위범주로 의미 부여하고 있다. 이 범주 안에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달콤한 말에 현혹됨’,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정보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이란 하위범주가 포함되고 있다.

친구가 재미로 결혼정보회사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한 한국 남자가 제 사진 보고 저만 마음에 든다고 결혼정보회사에서 계속 연락왔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회사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중략)... 만나고 이렇게 이틀하고 결혼했어요. 나도 모르게 결혼한 거예요(참여자 6).

## (3) 결혼 환상과 결혼 현실의 괴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그녀들에게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이 삶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품은 시작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는 경제적 풍요로움, 상대 남자의 낭만적 사랑, 행복한 가정 등의 긍정적 기대와 바램이 뒤섞인 비현실적인 결혼 환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연구 참여

자들이 가졌던 결혼에 대한 환상은 그만큼 현실적인 결혼생활의 실망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나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이 화려하고 멋진 한국 생활만을 생각하고 입국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이런 실망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결혼 환상과 결혼 현실의 괴리’에는 ‘국제결혼 서류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안한 미래’, ‘배우자 조건이 우선이었던 결혼생활 자체가 주는 실망감’, ‘꿈꾸었던 결혼과는 너무도 다른 결혼 현실’이라는 하위범주들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은 세 번 결혼했어요.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베트남, 다 도망가는 거예요. 첫째 부인의 딸도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알고) 많이 속상해 하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 부인의 딸이랑 다 같이 살았어요. 처음에는 여자들이 왜 도망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살아 보니 내가 알게 된 거예요(참여자 4).

#### (4)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폭력의 증후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배우자 혹은 가족 구성원인 자신들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은 채 거칠고 불같이 화를 표출하거나, 그녀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사람으로 이해되게 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살아 온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남성 배우자가 비쳐지기도 한다. 이것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 현실이라는 딜레마와 실망감 속에서 배우자나 시댁 가족들의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폭력의 증후들’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위범주 안에 ‘거칠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이상한 행동들’,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라는 하위범주들이 포함되고 있다.

나도 그때는 나도 잘못 있을 거 같아. 속상하니까 내가 술 먹어요. 술 먹어 가지고 자는데 내가 휴대폰 껐어요. 왜냐면 내가 화났어. 근데 나 찾았어. 친구 집. 옆집이요. 친구 집이 옥탑방인데 계단이 있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계단에서 밀어 가지고 딱딱 이렇게 떨어졌어요. 멍이 너무 많아. 그게 처음 폭행이고, 그 뒤로는 자주 폭행이 있었어요(참여자 5).

## (5) 날벼락 같은 폭력의 시작

국제결혼은 전혀 다른 이질적 두 문화를 가진 남녀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교적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한국 남성들은 아내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외국인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드러내게 된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초기부터 남성 배우자 혹은 시아버지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남편 가족의 폭력을 ‘날벼락 같은 폭력의 시작’이라는 범주로 의미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 안에는 ‘분풀이 폭력의 대상’, ‘모욕의 대상’, ‘간섭과 통제에서 폭력으로 돌변’이라는 하위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시아버지가 때리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말로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요. 시아버지가 욕하고 때리고 그래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남편도 시아버지가 무섭대요(참여자 4).

## (6) 점점 더 잔인해지는 폭력

결혼이주여성들은 나날이 그 강도가 심각해지는 남편과 남편 가족의 폭력과 폭행을 경험하면서 배우자와 그 가족이 의지해야 할 지지적 대상자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무서운 존재가 된다. 참여자들은 이것을 ‘점점 더 잔인해지는 폭력’으로 의미부여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인지한 잔인성이 더해지는 폭력의 의미 안에는 ‘아이에게까지 가해지는 폭력’, ‘안하무인의 배우자’,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이란 3가지 하위범주가 포함되고 있다.

남편이 폭력하면 시부모님 다 알아요. 제가 뭐 울었으니까. 시부모가 애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만 근데 애 아빠 무섭잖아요. 시부모도 할 수 없어요 애 아빠한테... 자기 부모님 말도 안 들어요. 시부모도 아들 무서워. 아버님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 다 참고 있어요(참여자 2).

## (7)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과 마음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과 남편 가족에 의해 자행되는 여러 유형의 폭력들에 노출되어 피폐해진 삶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의 망가진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것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과 마음’이란 상위범주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만신창이로서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은 ‘깊어지는 마음의 상처’, ‘고립무원의 처지’, ‘점점 망가져 가는 몸’이란 세 가지 하위범주의 의미들로 드러나고 있다.

항상 이유가 없어요. 많이 때렸어요. 항상 많이 때려요. 자유 없어요. 그 사람은 힘이 너무 세요. 원래 시골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요. 때리다가 약을 발라요. 멍이 들은 곳에 약을 사서 발라줘요. 그때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생활이 어려워서 몸이 너무 말라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못 먹은 사람처럼 뼈만 남은 사람 같아. 고생 많이 했어요(참여자 1).

#### (8) 자원의 부족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을 결정하면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가족과 고국을 떠나 국외로 이주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혼이주는 다차원적인 환경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자원이란 개인이 요구하는 충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로서, 이주여성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적 자원부터 가족 자원,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는 자원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홍성희, 2013: 123).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낯선 나라 한국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 남편 가족들에 의한 통제된 생활로 인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시 이것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구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의 부족’은 내적 자원으로 ‘가정폭력 대처 능력 부족’,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정보 부족’, 외적 자원으로 ‘지지 자원 부족’이라는 하위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내가 아는 사람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만난 베트남 언니 2명뿐이었어요. 남편들과도 같이 만났기 때문에 가끔 연락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폭력했어요. 나는 너무나 창피했어요. 그 언니도 나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도망나왔을 때 언니가 나를 교회에 데려다 주었어요(참여자 1).

#### (9) 생존을 위한 필사의 도움 요청

결혼이주여성들은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취약한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면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이들은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에 의한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횡수도 더욱 빈번해

지면서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생존을 위한 필사의 도움 요청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생존을 위한 필사의 도움 요청’을 ‘나를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 ‘나를 보듬고 안아준 쉼터’, ‘도망쳐 입소한 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한 아이’라는 하위범주들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은 원래도 아무 때나 화를 내고, 주먹이나 발로 아무 데나 막 때려요. 근데 그 날은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전화로 ‘너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남편(이) 말했대요. 딸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나에게 왔어요. 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회사 이 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도와 달라고...(중략)... 그래서 쉼터에 갔어요(참여자 5).

#### (10) 되찾은 안정감과 새 출발을 향한 준비

배우자와 그 가족에 의해 자행되는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난 참여자들은 쉼터에서의 생활 속에서 결혼생활로 피폐해진 삶을 추스르게 되고, 점차 안정감을 찾게 된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해 느껴야 했던 두려움과 공포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있다 라는 든든함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혼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남편과 시부모들이 참여자 자신들의 법적인 소송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되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이것을 ‘되찾은 안정감과 새 출발을 향한 준비’란 범주로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쉼터라는 보호막 속에서 되찾아가는 안정’, ‘소송을 위한 이혼서류 준비’라는 하위범주로 나타내고 있다.

쉼터 소장님과 함께 남편 만났어요. 조금 무서웠지만, 소장님이 있을 때는 절대 폭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나는 옆에 있기만 하면 소장님이 남편 잘못된 거 다 얘기했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해라고...(중략)... 남편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아요. 화나서 각서에 싸인도 하지 않았어요. 소장님과 함께 있으면 남편이 화(가)나도 나에게 폭력하지 않아요(참여자 1).

#### (11) 이혼과 가정복귀란 갈림길에서 서성대기

결혼이주여성들의 본국인 동남아 국가에서는 가족문화가 지배적인 사회로 여성에게 있어 이혼이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최후의 선택인 이혼에 이르는 과정 안에서 상당한 갈등도 존재하게 된다. 이를 본 연구는 ‘이혼과 가정복귀란 갈림길에서 서성대기’라는 상위범주로 주제화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위범주 속에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남편과 시부모의 용서를 구하는 행동’, ‘남편이 변할 거라는 기대감’, ‘이혼으로 방향타를 틀게 하는 폭력 가해자들의 실망스러운 언행’이라는 하위범주들이 포함되고 있다.

재판할 때도 시아버지가 큰소리치고 막 했었는데, 갑자기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돈 안 가져간다고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거짓말 같은데 딸 있으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딸 너무 불쌍해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참여자 4).

## (12) 이혼이란 선택지 결정

참여자들은 결혼생활 기간 내 심각한 폭력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가해자인 남편이나 그 가족들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고, 함께 잘살아 보기 위한 노력들도 하게 된다. 그렇지만 폭력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배우자 혹은 그 가족 구성원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돌아온 가정에서 더 은밀하고 교묘해진 형태의 폭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타국에서 참담하고 비참한 결혼생활이었지만, 어떻게든 깨지 않고 잘살아 보려던 노력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이혼이란 선택지 결정’이란 상위범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 범주 안에는 ‘폭력 가해자와의 이혼 결정’,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가정형편’이라는 두 가지 하위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은 거짓말을 잘해요. 돈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해요. 처음 결혼 때부터 거짓말 많이 했어요. 자기 돈 많다고...(중략)... 그런데 한국에서 나는 맨날 일만 하고, 남편은 폭력하고, 다른 여자 사귀고... 이제 잘못했다 말해도 믿을 수 없어요. 이혼하고 싶어요(참여자 5).

## (13) 가정복귀란 선택지에 흔들림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와의 이혼, 그리고 독자적인 자립 생활 속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해 간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과거 폭력의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어 간다. 또한 폭력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아이를 홀로 양육하게 되면서 자신들에 대한 객관적 시선들을 확보하기도 한다. 그리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가정복귀란 선택지에 흔들림’이라는 상위범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범주 안에는 ‘세월이 약’, ‘내 아이의 좋은 미래를 위한 선택지’, ‘가정이 주는 안정감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세 가지 하위범주가 포함되고 있다.

시어머니 가끔 쉼터 와서 딸과 나 만나요. 만나면, 아이 아빠 나쁜 사람 아니라고 하고, 남편 용서해 주고 집에 오라고 해요. 시부모는 돈 있어요. 만일 내가 남편과 함께 살게 되면 집도 따로 살게 해주고, 딸 가르치는 돈 다 시어머니가 준다고 했어요. 딸 이제 많이 커서 돈 많이 들어가요.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 말대로 다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참여자 3).

#### (14) 가정과 자아실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욕망

결혼이주여성들은 심각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켜려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자녀 양육을 원하는 폭력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 혹은 직업실현을 위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이들은 한국인 배우자와 비록 이혼을 결정하였지만,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 한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였다. 그것은 자신들의 본국보다 나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녀들이 교육받고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결혼이주의 실패한 삶이 고국에서는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을 지속하기를 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아이들과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인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였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전 배우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기적인 소득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직업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고, ‘가정과 자아실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욕망’의 상위범주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친정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은 편안한 가정생활’, ‘자아 실현하는 당당한 부모 되기’,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소망’이라는 세 가지 하위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어. 내가 이혼하면 부모님이 췌피한 거. 그래서 내가 결혼했을 때도 한국 못 가고 오랫동안 있을 때 부모님이 췌피했어요. 우리 동네 친척들 많이 살고, 장사하니까 사람 많이 알아. 그래서 엄마, 아빠 일 못 도와고 다른 곳에 가서 일했어요. ○○이 잘 커고, 아빠 사랑받고 사는 거 베트남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있어요(참여자 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의 결혼이주 선택은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속임수에 현혹되어 결혼이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습득없이 성급하게 진행된 매매혼식의 결혼방식이, 가정폭력의 원인적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한국 남성을 소개하는 결혼정보업체의 소개 전 단계에서부터 한국 남성 및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좀 더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남성 및 남성의 가족들의 경우, 국제결혼 선택에 앞서, 신부로 맞이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존중 및 이들의 인권침해가 가정생활을 파괴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제도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결혼 안내 교안 개발 프로그램에 반영된 내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과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김태은, 2021).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인증제 도입을 제안한 권행운·강병노(2016) 연구 제언에 부가하여, 인증받은 업체 혹은 최근들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익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강승묵, 2016) 공익목적의 결혼중개업체에서 예비 결혼이주여성 및 예비 남편, 남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의 긍정적 측면만을 바라보고 입국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가정생활의 가장 암울한 음지라고 할 수 있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없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입국 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연락할 수 있는 곳으로 '1366', '112' 정도의 긴급 비상 번호를 학습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생활의 가장 위험한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아주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 아닌 경우, 예컨대 방임, 언어적 학대, 지나친 간섭과 통제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해서는 자신이 폭력 피해자라는 것조차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 가정폭력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오랜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몰라 무자비한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 중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이러한 가정폭력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지지적 자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의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를 선택하고 한국으로의 입국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다양한 가정폭력의 유형 및 한국 생활에서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의무교육이 필요하다. 입국한 여성들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2020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 대응 체계 마련,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서비스로 모국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112 다국어 신고 앱’을 개발하고, 방문 교육지도사, 아기 돌보미, 청소년 동반자 등 가정 방문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에 대한 조기인지와 대처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빠른 대응력을 키워줄 수 있는 체화된 직접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등에서 가정폭력의 구체적 유형과 내용,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배우자(전배우자 포함) 및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통제나 스토킹을 가정폭력의 하위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새롭게 가정폭력 하위유형에 포함된 폭력에 대한 상세한 안내 교육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해 부각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조작행위)’도 광범위한 차원에서 정서적 학대로 보려는 시각들이 증가되고 있다(오세연·송혜진, 2021)는 점에서, 이러한 포괄적 범위의 폭력에 대해서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복귀 갈등 경험 안에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정상성과 현실성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장기간에 이루어진 심각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쉼터로 도망쳐 나오지만, 결국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사과와 회유에 못 이겨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일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대한 가정 생활 유지를 통해, 자녀 양육과 자신들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욕구가 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폭력적인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의 변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 자신 및 자녀들의 폭력 노출과 피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위협감 속에서 이혼을 결정하거나 혹은 가정복귀를 주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스스로가 결혼생활에 실패한 사람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싶지 않거나,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욕구를 다시 드러내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온전한 가정 속에서 좀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거나, 안정감 있는 가정생활을 주고 싶은 현실적 욕구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장기간의 가정폭력 노출과 이로 인한 심리사회적 외상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비참한 결혼 현실이 다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정상성 추구하고 비참했던 결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이 여성들의 가정복귀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가정복귀 갈등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개입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적 상호주의에 기반한 결혼이주가정 부부와 가족의 '상호균형감 회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호균형감 회복'이란 부부간 혹은 가족 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와 수용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는 한국 남성 배우자와 결혼이주여성 간의 국제결혼 유지의 실패는 이러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손미향·최희경, 2018).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 내 다문화 수용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 즉 자아실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시스템 중 한 가지 예로, 본 연구는 성공적 결혼생활 및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부부와 가족들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료멘토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바이다. 즉 동료멘토의 상담과 지지활동을 통해 가정 내 갈등의 문제가 폭력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조언과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가지 정도의 연구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가 많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중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세 나라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만을 면담하였다. 최근들어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나라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면담이 좀 더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의 풍부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출신 국가별, 유입 시기별로 구분한 좀 더 세분화된 연구 주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국 28개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쉼터 중 대도시에 있는 3곳의 쉼터에 의뢰하였고, 그 중 2곳의 쉼터 이용 경험이 있었던 여성들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수행을 위한 면담 표본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경험한 가정폭력 경험을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승묵, 2016, “국제결혼중개 계약과 혼인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양법학회, 제27권 3호, pp. 77-100.
- 고기숙,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제18권 1호, pp. 229-259.
- 고기숙·정미경, 2012,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콘텐츠학회, 제12권 10호, pp. 254-279.
- 권행운·강병노, 2016,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아태연구, 제23권 1호, pp. 31-60.
- 김민정,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 제19권 3호, pp. 1-28.
- 김응지, 2012,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및 그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19권 1호, pp. 447-474.
- 김태량, 2019,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30호, pp. 5-38.
- 김태은, 2021,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인권교육 교수 및 학습지도안 개발에 관한 고찰”, 아시아문화학술원, 제12권 4호, pp. 2309-2322.
- 문정화, 2017,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 단독으로 상담에 참여한 중국 출신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55호, pp. 91-128.
- 박동숙, 2019,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예명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미향·최희경, “결혼이주여성과 이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 해체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8권 1호, pp. 113-154.
- 신은식, 2012, “결혼이주민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1권 3호, pp. 117-142.
- 양순미·정현숙,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1권 3호, pp. 223-252.
- 오세연·송혜진, 2021,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가스라이팅 범죄의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제10권 5호, pp. 101-111.
- 이윤주, 2011, “네트워크 시각으로 본 디아스포라 시대의 결혼이주여성”, 시민교육연구, 2호, pp. 121-148.

- 이한동, 2008,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정신건강 : 스트레스와 우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금빈, 2015, “폭력피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배제의 조절효과를 결부하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순남, 2011,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 2009, “부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 적용, 가정과 삶의 질 학회, 제27권 3호, pp. 181-200.
- 최연숙, 2016, “결혼이주여성의 갈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ryman and Burgess, 1994, *Analyzing Qualitztive Data*, London: Routledge.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5th ed.)*, 신경식, 서아영, 송민채 역, 2011, 『사례연구방법』, 한경사.
- 국가인권위원회, 2017,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https://www.humanrights.go.kr>)
- 법제처, 2021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moleg.go.kr>)
- 법제처, 2021 b,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moleg.go.kr>)
- 여성가족부, 2019 a,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2019 b, “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 및 보호시설 운영개선 연구”,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2020 c,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팀 구성 및 실태 파악 추진”, 보도 자료.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2021 d, 『2020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http://www.mogef.go.kr/>
- 한겨레신문, 2019, ““외국인 신부 팝니다” 국제결혼중개업 왜 못 없앨까?”, 2019.07.11. (<https://www.hani.co.kr>)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여성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류 및 지원 관련법률”, (<https://www.stop.or.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a, “가정폭력실태 조사연구”, (<https://kwdi.re.kr>)

# A Study on the Conflicts of Marriage Migrant Women Who Suffered from Domestic Violence over the Prospect of Returning Home

Kim, Sa Ean, Yemyung Graduate University

Lim Hae Young, Yemyung Graduate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experien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who encountered conflicts on whether to reunite with their families. This study not only delves into the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spect of marriage migrant women which affected their decisions on returning home, it also serves to lay the foundation for policies and support systems that should be provided to those who choose to return home or who choose to live independently without their spouses.

This study uses Robert K. Yin's qualitative case research method and engages in inter-case analysis and in-case analysis. For in-case analysis, the study details how the interviewees met their spouses when they were still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how the interviewees moved to Korea, and how the domestic violence happened. For inter-case analysis, the study derived a total of fourteen high-level categories: 'the decision to be a marriage migrant woman and to live a new life', 'falling into the decep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the gap between the fantasy and reality of married life', 'the gradual appearance of signs of domestic violence', 'the start of unexpected domestic violence', 'the gradual increase of violence', 'the serious physical and mental injuries', 'the shortage in recourses and financial stability', 'the desperate call for help in order to survive', 'the preparation for a new start after having a sense of stability', 'the hesitation between the decision to have a divorce or reunify with family', 'the decision to go through with divorce', 'the hesitation with the decision to reunite with family', and 'the desire to have a harmonious family and also achieve self-realization'. Based on such categories, this paper provides a few issues for discus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Keywords: Marriage Migrant Women, Domestic Violence, Conflicts on Returning Home, Qualitative Case Research.

접 수 일 : 2023년 0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3년 04월 28일

게재확정일 : 2023년 05월 28일



글로벌융합복지

The 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Welfare

2023. 5. 제1권 1호 : 61-91

##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유순호\*\*

임혜영\*\*\*

###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가 어떻게 인식되고 이미지화 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및 이에 따른 세대 간 통합을 위한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BIG KIND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1개 중앙일간지의 2012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약 10년 동안의 뉴스 기사를 EIo와 Kyngäs(2008)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와 관련하여 '노인 혐오', '세대갈등', '노인차별', '노인 학대' 4가지의 주제영역에서 15개의 하위범주와 60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논의점과 제언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노인,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질적 내용 분석

\* 이 논문은 유순호의 2023년 박사학위논문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 교신저자(hae0629@hanmail.net),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2021)의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가구 수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4년 1010만 가구를 돌파하고, 2050년에는 1137만 5000가구로 30년 만에 2.5배 증가하는 것(통계청, 2021: 12)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7년 8월 이미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고 있으며, 2025년이면 노인인구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2040년 이 되면 노인인구 전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영민, 2022). 이러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학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노인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가 노인 혐오와 세대 갈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혜승(2022)은 우리 사회 내 노인에 대한 혐오성 표현으로 ‘틀딱’, ‘꼰대’, ‘태극기’, ‘부대’ 등이 상위 빈출 단어로 나타나고 있고, 노인을 ‘정치적으로 극단 보수일 거라는 인식 기반 혐오’, ‘기성세대를 꼰대로 간주하는 세대 갈등형 혐오’, ‘노인을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하는 혐오’ 등의 주제로 도출된다는 것을 네이버 뉴스 댓글 분석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형성하는 이미지는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의미 부여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현재까지 수행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미혜, 2003; 김선영, 2007). 먼저 인터넷 뉴스 기사를 분석한 김미혜(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은 질병을 앓고 있으며, 지저분하고 초라한 외모를 가진 존재이며,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가족과 단절되어 혼자 사는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일할 곳이 없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이미지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습 열의가 높고, 여가생활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긍정적 존재로도 함께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김선영(2007)의 연구에서는 “노인은 건강하지 못하거나, 품위 없고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이미지화 되거나 사랑받는 존재로 표상될 때 조차도, 가족과 사회 안에서 부양과 부담의 존재로 이미지화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수진 외 (2019)의 연구에서는 현명한, 온화한, 안정적인 등의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노쇠한, 비관적인, 보수적인, 독단적

인, 고집스러운, 의존적인 등의 부정적 이미지 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는 노인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될수록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고(전상남·신학진, 2009), 이것은 노인차별을 약화시키는 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홍현방,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어떤 이미지로 표상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노인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인터넷 뉴스 기사와 같은 대중 언론 보도의 내용은 시사적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뉴스 기사로 빠르게 노출되면서, 그것은 엄청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 국가적 논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정익재, 2013). 더욱이 현대인들은 급속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면화 된 뉴스 기사보다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게재되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임해영 외, 2021).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에서 보도되는 뉴스 기사는 현시대의 노인 관련 사회적 이슈가 어떻게 회자되고 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질적 내용분석은 서면화 되어 있는 기존의 문서 자료 속에서 특정한 의미의 패턴과 구조를 발견하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11개 전국 일간지 인터넷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에 관한 인식이 세대와 계층을 망라하여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요 의미를 도출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노인복지 실천 영역에서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및 이에 따른 세대 간 통합을 위해 어떠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Elo와 Kyngäs(2008)가 제안한 질적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세 가지 단계 즉, 준비(preparation), 조직화(organising), 보고(reporting)를 중심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본 연구가 Elo와 Kyngäs(2008)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려는 이유는 인터넷 뉴스 기사라는 문서화된 기성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가 어떠한 의미구조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데 용이한 연구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 상정하고자 한다.

## II. 문헌 고찰

### 1. 노인의 개념

국제노년학회(1951)에 따르면, 노인은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체 자체의 통합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신체의 적응 능력이 점차로 결손되고 있는 사람, 환경변화에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복합적인 과정에 있는 사람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양옥남 외, 2017). 연령적 측면에서 노인은 ‘늙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년은 노인의 어떤 연령별 단계를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의미로, Neugurten(1995)은 노년기를 세분화하여 노인을 75세 미만의 ‘The younger old’와 75세 이상의 ‘The older old’로 구분하여 노인기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Hall(1996)은 65세부터 75세 미만을 ‘Young-old ages’ 75세 이상을 ‘old-old ages’로 구분하였다(황성호 외, 2011).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국가법령센터, 20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1년 현재 62세인 점(김은표, 2021)을 감안할 때, 사회 통념상 노인은 대체로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늙은이’라는 호칭은 노인을 낮추어 부르거나, 업신여겨 지칭할 때 사용되며, ‘어르신’이란 호칭은 노인을 높여 부를 때 쓰인다. 그런데 ‘늙은이’란 호칭은 늙고 병들어 경제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노인을 부정적으로 이미지화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어르신’이란 호칭은 높여서 부를만한 공경의 존재로 노인에게 의미를 부여할 때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유범상·이현숙, 2021).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활동적인 노인’이라는 의미를 지닌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다(유범상·이현숙, 2021). 위에서 알 수 있듯 노인에게 부여된 호칭은 상반되거나 대립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면에서 노인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쓸모없는 존재로서 비하의 대상이 되고, 다른 측면에서는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가진 공경의 대상으로 의미부여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

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 그리고 노인에 대한 상반된 호칭과 그 속에 내포된 부정적, 긍정적 의미들은 사회적 취약 집단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을 넘어, 이 집단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과 더 나아가는 학대 등과 같은 물리적 공격까지도 표출될 수 있는 부정적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것의 근거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은 대중교통, 식당, 커피숍 이용시, 판매시설, 공공기관 시설, 의료시설, 직장 및 가족 내 의사결정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윤경 외, 2020). 현재 65세 이상 노인 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77.0명으로 전년 대비 8.8명이 증가했다. 이 중에 여성 고령자인 경우 102.1명으로 남성 고령자의 학대 경험률인 44.1명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1).

## 2.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

김미혜(2003)는 이미지를 “어떤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느낌”이며,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안다는 뜻으로 인지, 의식, 분별과 유의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상상할 때 그 사람의 모습과 이름, 표정, 옷차림, 말씨, 걸음걸이와 같은 모습이나, 같이 있을 때의 느낌, 성격, 태도, 신뢰 등 많은 상상이 무작정 떠오를 때, 그것들이 통합되면서 하나의 형태로 점점 정리되면서(문지영·김정원, 2004), 특정 대상에 대한 느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미지는 ‘전통적으로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온화하고’ ‘인자하며’, ‘부지런하다’ 등의 긍정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집단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인숙·김도연, 2017). 하지만 노인의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재생산하는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그리고 활동에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대중매체와 소통 수단들이 진화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도 시대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리 구성될 수 있다(조인숙·김도연, 2017). 이에 따라 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 가능성을 높이고 노인차별을 약화시키는 정적인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는 자존감 및 노인에 사회참여의 저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하다(홍현방, 2009). 또한 전상남과 신학진(2009)의 연구에서도 노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될수록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높고 이미지에 긍정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때문에,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가 그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형성되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 뉴스 기사를 분석한 김미혜(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관련 기사들이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 순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신체적 특성에서는 질병 유무, 심리적 특성에서는 노인의 성격, 가족관계 특성에서는 노인의 주거유형, 사회적 특성에서는 노인의 여가생활, 경제적 특성에서는 노인 빈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의 중복응답을 조사한 결과, 93.5%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긍정적 이미지를 담은 기사는 44.2%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건강, 정서, 지적, 경제 4가지 영역에서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지적 측면에서 ‘현명하다’라는 긍정적 결과가 나왔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노쇠, 비판적, 의존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홍현방, 2009). 또한 김수진 외(2019)연구에서는 성인 노인에 대한 심리적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이미지는 부정적이며 신체적 이미지는 그보다 더 부정적으로 이미지화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진경(2015)연구에서는 노인 이미지란 노인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과의 직·간접적 접촉이나 경험을 통해 얻어진 노인에 대한 인상이자 전반적인 느낌을 의미하며, 노인 이미지는 인식주체의 주관적 경험에 따라 상이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비 노년층은 노인에 대한 지식과 교육, 봉사 경험이 있을수록, 노년층은 차별 경험이 적고, 건강과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노인 이미지로의 개선을 위해 세대간 노인 교육,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미디어, 사회적 캠페인 및 노인 관련 산업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고 있다(정진경, 2015).

요약해 보면, 노인의 이미지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이미지의 방향도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가 혼재되어 있긴 하나 현재 시대로 올수록 부정적 의미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노인의 이미지가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을 뿐 노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그 내용 자체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를 풍부하게 다루고 있는 전국 일간지 인터넷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노인

의 사회적 이미지에 관한 질적 내용분석에 초점을 둘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질적 내용분석

질적 내용분석은 단어들로 구성된 모든 자료들을 여러 형태의 범주로 분류하여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최성호 외(2016)는 질적 내용분석은 대중매체 속의 메시지 분석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내용을 기술하고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며 기술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Elo와 Kyngäs, 2008), 내용분석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비교적 쉽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질적 자료 분석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질적 내용분석은 단위화(unitizing)란 고정화 작업을 통해 그림, 녹음, 상징 등의 다양한 자료 분석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절차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가 어떻게 의미화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일간지 뉴스 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Elo와 Kyngäs(2008)가 제안한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유는 Elo와 Kyngäs(2008)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사회현상을 귀납적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용이한 연구 방법이며, 이를 위해 준비(preparation), 조직화(organizing), 보고(reporting)란 명료화된 3단계 방법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김영천·정상원, 2017). Elo와 Kyngäs(2008)가 제안한 내용분석의 준비 단계는 위에서 분석단위를 선택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조직화 단계는 개방 코딩, 범주 형성, 추상화 3단계를 거치는데, 개방 코딩이란 자료를 읽으면서 메모를 하거나 제목을 다는 과정이며, 범주 형성은 범주의 목록을 보다 상위범주로 그룹화 하는 단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보고 단계는 추상화된 범주를 유의미한 내용으로 연구자의 해석과 결합하여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lo와 Kyngäs(2008)가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의 귀납적 3단계 과정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와 관련된 자료수집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언론진흥재단 빅 카인즈(Big Kinds) 사이트를 활용하여 2012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약 10년 동안 노인이라는 주제로 검색된 노인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 중에서 노인의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 뉴스 기사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세 가지 제외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제목이 중복되는 뉴스 기사, 둘째, 노인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 뉴스 기사, 셋째, 유명인, 특정 정치인 등 유력 인사와 관련된 뉴스 기사는 모두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제외 기준을 통해 전체 604개 기사 중 ‘노인혐오’ 관련 기사 14개, ‘세대 갈등’ 168개, ‘노인차별’ 25개 ‘노인학대’ 관련 기사 397개, ‘노인 이미지’ 0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중 위에서 제시한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노인 이미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기사 등 536개 기사를 제외하고, 최종 60개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뉴스 기사로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분석 대상이 된 뉴스 기사는 ‘노인혐오’ 영역에서 14개, ‘세대 갈등’ 영역에서 12개, ‘노인차별’ 영역에서 15개 ‘노인학대’ 영역에서 19개 기사를 확정할 수 있었다.

자료 분석은 수집된 원자료를 1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분석단위를 선택하여 준비하였다. 다음은 조직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객관화하고 이것은 줄 단위로 개념을 부여하는 개방코딩 작업을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유의미한 개념과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집된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검토하는 반복화 작업을 통해 유의미한 개념과 범주를 추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단계에서는 도출한 개념과 범주의 내용을 연구의 질문과 관련지어 기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요 개념과 범주, 주요주제 영역을 목록화하여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 결과로서 사실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 3.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신용성(credibility), 전이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실성(conformability)의 4가지 방법적 기술을 활용하였다. 먼저 신용성(credibility)이란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는 다양한 연구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장기간 연구에의 참여, 지속적인 관찰, 동료 검증,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도출된 자료를 확보하여 반복적 비교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분석 자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도 교수의 지속적인 점검 과정을 거쳐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장기간에 걸쳐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전이성은 심층적 기술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분석한 뉴스 기사에서 개념을 도출하고 이것을 상위범주, 하위범주로 배치할 수 있는지를 사례 내 사례 간 교차적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더 큰 상위범주로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를 확정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의존성은 신용성에 재검증의 과정으로서, 본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 1인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가족학박사 1인 그리고 질적 연구 수행을 경험한 선배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받았다. 넷째, 확실성으로서 연구자의 자기 인식과 반성이 드러날 수 있는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자 자신이 분석한 뉴스 기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나 곡해된 해석은 없는지를 반성적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숙고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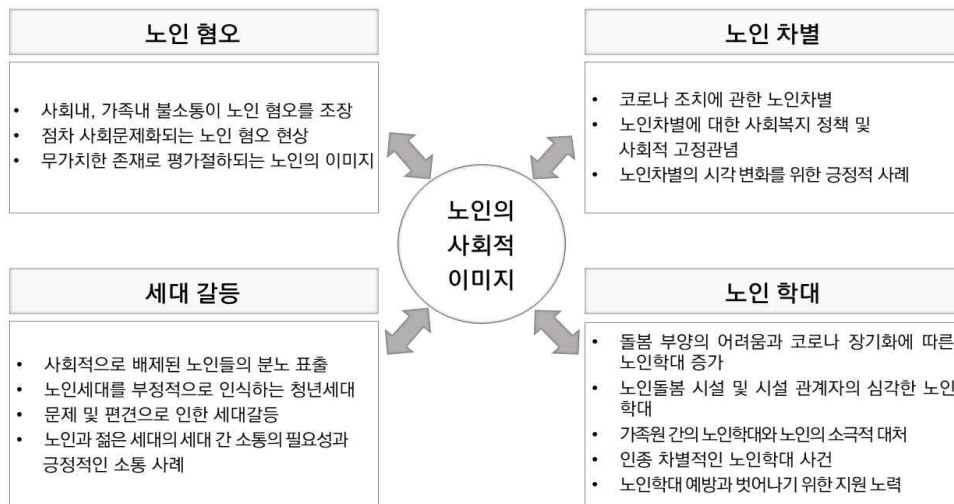
## IV. 결론

### 1. 연구결과

#### 1) 주제영역 목록

본 연구에서는 Elo와 Kyngäs(2008)의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총 4개의 주제 영역에서 15개의 하위범주와 60개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개념과 범주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 관련 주제 영역과 하위 범주

## (1) 노인혐오 영역 내용 기술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단적으로 드러난 언어적 표현들은 ‘노슬아치’, ‘뜰딱충’, ‘무임충’, ‘노인충’, ‘꼰대’ 등과 같은 비속어들이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이여주·송준아, 2021).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인터넷 뉴스 기사들은 노인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부적 감정과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노인혐오를 ‘사회 내, 가족 내 불 소통이 노인혐오를 조장’ 한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점차 사회문제화되는 노인혐오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인혐오 속에서 노인 당사자들은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 절하되는 노인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 ① 사회 내, 가족 내 불 소통이 노인혐오를 조장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우리 사회 내 세대, 성별을 불문하고 만연해 있는 불소통이 노인혐오를 조장한다고 파악하였다. 먼저 한겨레(2018) 기사의 경우, 사회 내 세대 간 불소통의 문제가 청년 세대에게 노인 세대를 미래의 부담이 되는 인구 집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키운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분석한 기사들은 노인 세대들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의 어려움이 노인혐오를 조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세계일보(2018)의 경우 70세가 넘는 노인 당사자가 명절날 자녀, 손자녀 세대와의 소통 방법을 모르고, 특히 자식들도 노인 당사자와 대화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느낌을 받아 소외감이 든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툼딱’, ‘냄새나’와 같은 자신들을 혐오하는 비속어와 노인편파적 표현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젊은 세대에게 노인 세대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분석하였다.

“이모(73)씨는 해를 거듭할수록 명절이 불편해지는 것 같다고 한다. 지난 추석에도 모처럼 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이씨의 집에 모였으나 그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시간을 보냈다. 이씨는 “뭘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나랑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말을 건네기가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경로(敬老)라는 말이 희미해지고 있다. 그 빈자리에 조롱과 멸시, 혐오 표현들이 스며들었다(…이하 중략)(세계일보, 2018, 10, 02).”

“김모(76) 노인은 얼마 전 지하철에서 자리에 가만히 앉았만 있었을 뿐인데 옆에 앉아 있던 한 무리의 청년들이 내리면서 “아, ‘툼딱’ 냄새나”란 말을 남기고 갔다. 스마트폰으로 툼딱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본 뒤 김씨는 그날 하루를 완전히 망쳤다고 털어놨다(세계일보, 2018, 10, 02).”

이로 인해 노인 당사자는 시간이 갈수록 가족과도 단절되는 느낌을 받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공경과 존경의 대상이 아닌 이유 없이 싫어지고 미워지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② 점차 사회문제화되는 노인혐오 현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회문제화되는 노인혐오 현상은 우리 사회 내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세계일보(2018)의 경우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의 의미를 담은 신조어 ‘충’, ‘꼴’, ‘빠’ 등이 빠르게 퍼져나가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적 삶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일보(2019)의 경우 폐지를 줍고 무임승차 하는 노인들을 매일 마주치는 청년층의 노인혐오는 곧 자신들도 폐지를 줍거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젊은 세대의 부정적 눈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자기 불안’이 내재 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세계일보(2019)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8년 9월 한 달간 반인륜적 패륜 행위 조성과 사회 약자 혐오감 표출을 이유로 삭제한 인터넷 게시물 497개를 분석하였다. 이중에도 “길거리 할배 새끼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등과 같이 노인을 실랄하게 공격하는 비판적 댓글과 온라인상에서 일상화된 노인 혐오 표현으로 “툼딱 전용 칸 만들어라.”, “노인들 나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시간만 때운다.” 등의 표현도 언급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운 노인혐오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만연

되었다는 것은 노인혐오의 문제가 이미 수위가 높은 사회문제화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틀딱 전용 칸 만들어라. 지하철 타겠다고 기어 나와서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한다.” “노인들 나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시간 때운다. 지하철은 그들의 사랑방이 아니다.” “노인들 냄새나니까 못 나오게 막아라.” 익명에 기댄 ‘온라인 노인혐오’가 그칠 줄 모른다. 틀니를 딱딱 부딪힌다는 ‘틀딱’은 새롭지 않으며, 시끄러운 할머니를 뜻하는 ‘할매미(할머니+매미)’와 연금을 축낸다는 ‘연금충(연금벌레라는 뜻)’이라는 단어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노인 관련 기사 댓글에서 발견된다(세계일보, 2019, 04, 01).”

### ③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절하되는 노인의 이미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경의 대상이었던 노인들이 교양 없고 몰염치한 노인으로 가치 절하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것을 세계일보(2018)의 경우 혐로(嫌老, 노인혐오)’라고 언급하였고 한국일보(2019)에서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무한경쟁, 무한성고가 만연하면서 노인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요되는 비용과 지출이 많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세계일보(2019)의 경우 ‘태극기 부대’라는 노년의 정치 성향에서 비롯한 이미지를 노인혐오가 폐지 좁는 노인, 무임승차 하는 노인, 혼자 사는 노인, 가난한 노인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겹치면서 이들은 우리 사회의 멀리 혹은 조롱의 대상이라고 언급하였다.

“사회에서 무언가를 생산해낼 수 없는 노인은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라며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비용’이라 보면서, 노인을 멸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단언했다(한국일보, 2019, 02, 21).”

정리해보면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노인혐오란 현상은 ‘사회 내, 가족 내 불 소통이 노인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그것의 원인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적 현상으로 ‘점차 사회문제화되는 노인혐오 현상’과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 절하되는 노인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 (2) 세대 갈등 영역 내용 기술

세대 갈등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각기 다른 세대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위키백과, 2022).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노인들은 서구사회와는 다르게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일제 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과 같은 한국의 근·현대사의 격동을 온

몸으로 겪어낸 세대이다. 이에 반해 MZ 세대로 대표되는 20·30대 청소년 세대의 경우,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의 주역이자, 이전 세대보다 좀 더 풍요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하였지만, 동시에 이전 세대보다 일자리나 연금, 부의 축적 등에서는 불평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대이다(김기연, 2022). 위와 같은 세대 간의 특성의 차이를 알 수 있듯,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터넷 뉴스 기사는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노인들의 분노 표출’과, 이러한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노인 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세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및 편견으로 인한 세대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도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소통사례’ 등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세대 간 통합 가능성으로 이해해 보려는 사회적 노력 또한 존재한다는 것도 분석하였다.

#### ① 사회적으로 배제된 노인들의 분노 표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노인들이 표출하고 있는 분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내일신문(2021)의 경우,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들인 실버노동자는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사회적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일보(2019)의 경우는 젊어서도 형편 없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세대 갈등 운운하며 세대 간 분열을 조장하는 태극기 부대의 집회에 참석하여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노인 세대 당사자 중 특히 서울대와 같은 명문대를 나온 일부의 사람들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경향신문(2017)의 경우, 사회로부터 밀려나 박탈감을 경험하는 노인 세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의 정치적 명분과 신념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인정투쟁으로, 노인 세대의 분노가 표출한다고 언급하였다.

“노인의 3고는 빈곤·질병·외로움이다. 한국의 노인자살률과 빈곤율은 수년째 OECD 최고다.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 OECD 최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대별로 50세 이상과 이하의 응답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데, 노인들은 강한 소외와 배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이하중략)(내일신문, 2021, 10, 27).”

“대답자들은 “태극기 집회는 밀려난 사람들의 인정투쟁”이라며 “집회의 조직자와 참여자를 분리하고, 동정과 혐오 이분법을 넘어서 사안을 볼 것”을 주문했다. …(중략)…노인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모이도록 하는 것은 박탈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계기가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박탈감에 의한 인정투쟁이다. 자신들의 경험, 가치관, 신념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현대사회의 속도와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멈출 수는 없으니 뒤로 가는 것을 원한다(경향신문, 2017, 03, 18).”

## ② 노인 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세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으로 배제된 노인들의 분노 표출’의 원인적 배경으로 ‘노인 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세대의 이해 부족에 관한 내용 속에서 찾고 있다. 예컨대 내일신문(2018)의 경우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장년층들은 노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과 함께 노인 부양비용 증가와 같은 청장년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의 가중이 노인 세대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맥락적인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한국일보(2019)의 경우 노인 세대들이 살아온 기존의 삶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층의 생각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로서, 빈곤한 노인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세대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경제력을 꼽았고 지금의 노인 세대들이 자신들의 노년을 위해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불운한 세대라는 부정적 인식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한국일보(2019)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과 소통하고 싶어도, 우리 사회의 연공 서열·수직 문화에 익숙한 노인 세대들과 대화가 쉽지 않으며, 대화의 방식이 젊은 세대와는 전혀 다른 노인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 세대의 삶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젊은 청년세대의 깊이 있는 이해 부족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현재의 노년 세대는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불린다. ‘이중 부양’을 하다 노후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야. 노인의 절반이 빈곤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행복한 노인의 삶은 상상이 잘 안돼, ‘나도 저런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미디어에 노출되긴 해. 그런데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더라고(…이하 중략)(한국일보, 2019, 08, 20).”

### ③ 사회 구조적인 문제 및 편견으로 인한 세대 갈등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세대 간의 갈등 특히 노인 세대와의 갈등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찾기도 하였다. 이것은 정년 연장의 문제가 곧 청년세대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의 문제와 이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 젊음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적 환경이 늙어간다는 것을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절하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세대 갈등이 야기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먼저 내일신문(2021)의 경우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때, 젊은 층과 노년층이 함께 소통하며 공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각 세대에게 닥쳐올 결핍과 위기를 먼저 살피지 않을 경우, 이것은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경향신문(2019)의 경우, 젊음을 강요하는 사회 내 편견이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늙어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이에 따른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화된 인간으로 노인들의 욕망을 몰아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상호 이해의 구조 속에서 화합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 갈등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기 다른 세대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각 세대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현재에도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 갈등은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대 갈등이 심해지고 상호 적대적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해구조가 붕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동질성 및 공감대가 상실되면서 각 세대는 다른 세대들에 대한 증오감과 무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갈등이 악화된 것은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세대별로 전혀 다른 사회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중략)...갈등을 빚고 있는 세대들이 공유하는 유일한 가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청년층은 실업을, 중장년층은 조기 퇴직과 은퇴 이후를, 노년층은 빈곤을 걱정하고 있다. 모두가 미래는 현재보다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복지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의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갈등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내일신문, 2021, 10, 19).”

#### ④ 노인과 젊은 세대의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소통사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노인 세대와 젊은 층의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대 간 원만하게 소통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일보(2019)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들이 노인 세대를 만나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노인 세대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낯설거나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던 자신의 시각에 변화를 가져온 사례를 소개하며, 노인 세대와 소통한 젊은 세대가 노인을 돌봄을 제공받는 존재에 머무르게 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일보(2019)의 경우 한 지붕 세대 공감 사업을 통해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에 기존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살고 있는 한 여대생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사례에서 할머니와 여대생은 친할머니와 손녀처럼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가족처럼 식사도 함께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소개하였다. 또한 노인 세대에게는 어려운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이 세대 공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무료 영상 제작 교실에 갔다가, 강의실에 가득한 어르신들을 보고 놀란 적이 있어. 그분들도 나를 반히 쳐다보시면서 낯설어하셨어. 처음엔 내가 ‘이방인’이 된 것 같아서 수강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몇 번 나가보니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어. 어색해하는 나와 달리 그곳의 어르신들은 ‘사회생활 만렙(최대 레벨)’이셨어. 뛰어난 스킬로 대화를 유도하시는데, 친하지 않은 사람과 개인적인 얘길 안 하는 편인 내가 이런저런 얘길 하면서 웃고 있었어. 그분들은 지역사회 관련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이더라고. 지역의 훈훈한 소식이나, 개선돼야 할 문제를 영상으로 만들어 방송국에 송출하신다고 했어. 그분들을 보며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 노인이 돌봄을 제공받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해(...이하 중략)(한국일보, 2019, 08, 20).”

요약해 보면 위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현상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노인들의 분노 표출’, ‘노인 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세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및 편견으로 인한 세대 갈등’, ‘노인과 젊은 세대의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소통사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및 편견으로 인한 세대 갈등’은 그것의 원인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된 노인들의 분노 표출’, ‘노인 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세대’는 위의 원인적 배경으로

인한 결과적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뉴스 기사들은 ‘노인과 젊은 세대의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소통사례’를 통해 사회문제화되는 세대 갈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3) 노인차별 영역 내용 기술

노인에 대한 차별이란 노인이라는 특정 연령층에 대해 부당하게 행해지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성차별 또는 인종차별과 유사하게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한다(김주현, 2009). 본 연구가 분석한 기사들은 ‘코로나 조치에 관한 노인차별’,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적 고정관념’, ‘노인차별 타파를 위한 시각 변화를 보여주는 긍정적 사례’란 3가지 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코로나 조치에 관한 노인차별’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접촉을 금지하는 행위가 노인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고령 인구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복지 관련 정책이나,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시선이 노인차별을 조장한다고 이해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노인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시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① 코로나 조치에 관한 노인차별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겨레(2020)의 경우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노인 사망 비율이 80%라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초강대국인 미국에서조차 노인에 대한 허술한 의료지원 체계 자체가 노인 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동아일보(2020)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노인차별은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코로나 19 희생자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주장을 들어, 코로나 19 치료에 있어 노인 차별적 태도를 드러낸 일부 국가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다. 코로나 19 환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 세대이지만, 노인 치료와 관련된 코로나 19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연구 접근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집단만 봉쇄 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희생양 삼기(scape goating)일 수 있다는 최동호 외(2020)의 지적은 일견 타당해 보이기까지 하다.



“노인을 차별하는 건 일부 고약한 젊은이들만이 아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달 초 “코로나 19의 희생자가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사태 초기 수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 이진도덕적 부패의 문제”라고 했다. 미국도 대처가 늦은 나라 중 하나인데 텍사스주 부지사는 얼마 전 각종 영업 중단 조치를 완화하자면서 “노인들은 경제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가 호된 비난을 샀다(동아일보, 2020, 03, 28).”

## ②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적 고정관념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우리 사회 내 노인을 차별하는 근본적 원인은 ‘고령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과 서비스 등 정책 부분과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일보(2012)의 경우 최근 들어 고령의 운전자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몇 년 동안 인명사고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노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노인들의 운전할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는 것은 노인차별의 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또한 중앙일보(2017)의 경우 노인 세대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도 노인차별을 조장하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사회적 분위기가 고령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 환경과 노인 세대의 특성을 젊은 세대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가 노인에 대한 차별을 더욱 조장한다고 언급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고령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과 서비스가 모두 노인차별의 원인이다. …(중략)… 허 교수는 “앞으로 노인 차별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봤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등이 다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차별의 이유는 뭔가.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부족한 측면이 크다. 어르신들을 접해보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압축적인 고령화로 여러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젊은 사람에게 이해시킬 시간이 부족하다. 고령 근로자들의 능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노인들은 퇴직하면 ‘뒷방 어르신’ ‘삼식이’라는 표현처럼 의존의 대상이 된다(중앙일보, 2017, 11, 27).”

## ③ 노인차별에 대한 시각 변화를 위한 긍정적 사례

서구사회에서는 연령 차별주의를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와 함께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간주하고 주목해 오고 있다(Nelson, 2005; 황미영, 2019). 이것은 노인에 대한 다른 세대의 연령에 기반한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우리 사회 내 노인차별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비 부양자이자,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적 태도가 세대 전반에 팽배해질 경우,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젊은 청년들이 직접 노인이 된 몸을 체험해 봄으로써,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 묘사는 물론, 노인 세대에 대한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내일신문, 2019). 또한 한국일보(2018)의 경우 잠실관광특구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55세 이상의 시니어 단원의 경우,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광특구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안내해 줌으로써, 친근한 느낌을 주며 지역발전에도 공헌한다고 언급하였다.

“2003년부터 저자는 노인차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발표해 왔다. VR 속에서는 젊은이가 노인이 될 수 있다. 연구팀은 VR 속에서 노인이 돼 보게 한 후 ‘단어 연상 과제’라는 방법으로 실험 참가자의 생각 편향을 측정했다. “나이 든 사람을 볼 때 떠오르는 단어를 5개 열거하라”라고 묻는 것이다. 노인이 된 실험 참가자는 노인 일반을 묘사할 때 더 긍정적 단어를 구사했다. 예컨대, 그들은 ‘주름진’ 보다 ‘현명함’을 택했다. 공감력을 키우는 최상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상상하는 것이다. VR은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VR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경험할 수도, 노숙자의 삶을 경험할 수도 있다(…이하 중략)(내일신문, 2019, 02, 22).”

요약해 보면 위에서 분석한 뉴스 기사들은 우리 사회의 노인차별 현상을 ‘코로나 조치에 관한 노인차별’,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적 고정관념’, ‘노인차별의 시각 변화를 위한 긍정적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적 고정관념’이 노인차별의 원인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 원인적 배경은 ‘코로나 조치에 관한 노인차별’이란 결과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2020년 초 전 지구적 감염병이 된 코로나 19가 지속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인차별은 이 감염병으로 인해 차별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위 뉴스 기사들은 코로나 19조치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노인차별을 ‘노인차별의 시각 변화를 위한 긍정적 사례’ 소개를 통해 해소하려는 사회적 시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4) 노인학대 주제영역 내용 기술

우리 사회 내 노인학대의 다양한 형태들은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 기타 장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에서도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임과 경제적 방임을 조사한 결과, 독거노인의 경우, 신체, 돌봄 및 경제적 방임이 높은 반면, 노인부부 가구에서는 성, 정서적 학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돌봄 부양의 어려움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노인학대 증가’, ‘노인돌봄 시설 및 시설 관계자의 심각한 노인학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와 노인 당사자의 소극적 대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종차별적인 노인학대 사건’과 ‘노인학대 예방과 벗어나기 위한 지원 노력’에 대한 기사 내용을 소개하였다.

### ① 돌봄 부양의 어려움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노인학대 증가

산업화한 현대사회에서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에 의한 노인 돌봄과 부양의 부담은 많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당사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도와주는 일차적 지지체계는 여전히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 돌봄 역할과 부양책임은 가족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장희경·김혜영, 2013). 한국일보(2019)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부부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독립해 사는 자녀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노인 배우자에 대한 돌봄 스트레스와 불만족은 더 커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불만족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결국 상대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조선일보(2021)의 경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의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간병인으로 취업해 생활하는 노인의 귀중품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일이 빈번하다고 보도하였다. 거기에 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이 대폭 줄어들면서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다.

“2019년 9월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A(76)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평소 밖에서 물건을 주워 오는 수집증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던 A씨는 이날 남편에게 사소한 부탁을 했다가 폭언과 함께 옷걸이로 폭행을 당했다 …(중략)… 노인 학대 가해자 중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화로 이른바 ‘빈 둥지 가구’라 불리는 노부부 2인 가구는 늘어나는데…(중략)… “독립한 자녀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상 불만족이 커지면서 노인 부부간 다툼의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기초연금 확대, 노인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지원책과 함께, 노인 학대 피해자 쉼터를 확충해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한국일보, 2022, 03, 15).”

## ② 노인돌봄 기관 및 기관 관계자의 심각한 노인학대

기관 학대란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를 말한다. 이러한 기관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뉘고 전체 학대 사례 중 생활시설에서의 학대 8.3%, 이용시설에서의 학대 1.5%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노인복지시설 및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먼저 경향신문(2021)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학대가 최근 10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기관에서의 학대가 일회성에서 반복적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원인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건수가 최근 10년간 9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성적 학대 사례도 급증해 피해 노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중략)... “시설 학대는 단기적인 일회성 학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더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직원 교육 및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피해자 중에는 의사 표현이 힘든 치매 환자나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 많아 신고 사례보다 더 많은 학대가 잠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학대 규모와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경향신문, 2021, 08, 25).”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노인 요양보호 시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 학대에 대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2022)의 경우 노인보호센터 내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에 센터 직원들이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누르거나 손과 발을 묶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보도하였다. 또한 문화일보(2022)의 경우 80대 치매 노인이 배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갈비뼈가 골절되어 6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시설 내 직원은 노인이 넘어졌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노인 학대 행위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뿐만아니라, 한겨레(2021)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알몸을 그대로 노출 시키며 목욕을 시키거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요양보호사와 기관 원장의 학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코로나 19로 가족이 기관 방문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세계일보(2021)의 경우 요양병원의 간병인에 의해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해 보도하였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외력은 없었다.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라고만 했다.”라는 내용으로 학대 피해 가족이 터뜨린 분통을 소개하였다. 또한, 다른 세계일보(2022)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잠그고 노인을 이불로 덮어씌운 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학대 피해 사실을 소개하면서, 폭행 후 이를 동안 가해자인 요양보호사를 할머니와 분리하지 않아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였으며, 학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 ③ 가족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와 노인 당사자의 소극적 대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보면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법제처, 2022). 이 법은 그만큼 노인에게 대한 효를 우리나라가 중시해오던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학대 사례로 자녀들에게 학대당하는 사례보다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동아일보(2021)의 경우 가족에 의한 학대 중에서, 아들이 1위, 배우자 2위로 나타났으나, 최근 10년 새 배우자의 학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내일신문(2021)의 경우 40대 아들에 의한 70대 아버지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노인 학대가 주로 가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학대를 입은 노인들이 신고나 피해 진술을 꺼리는 것은 자신의 젊은 시절 과오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자책감, 자녀에게 보복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자신이 받는 취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대한 수치심 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하였다.

“알코올 중독 40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70대 아버지는 극구 아들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려 했다. 어떻게 자식을 신고할 수 있는냐고 버텼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가해 아들은 존속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중략)…노인학대의 특징은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학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학대 행위자는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학대(13.0%)를 제외하고는 자식이나 배우자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학대에 대해 노인들은 신고나 피해진술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젊은 시절 과오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자책감, 신고했다가는 자녀 등에게 더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자신이 받는 취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대한 수치심 등이 걸림돌이 된다(…이하중략)(내일신문, 2021, 08, 09).”

#### ④ 인종차별적인 노인학대 사건

백인 중심주의는 인종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유색인종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종차별에 기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장태한, 2002). 이러한 인종차별은 코로나 19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서구 유럽 사회 내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뉴스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선일보(2022)의 경우 아시아계 여성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강하게 떠밀고 그대로 사라져 버린 사건에 대해 언급하였다. 거기에 다른 언론(동아일보, 2021)에서도 아시안 계 노인 부부를 20세의 미국인이 묻지마 폭행을 하였고, 폭행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코로나 19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미국 사회에 살아가는 아시안 계 노인들이 증오와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한 공원에서 79세 할아버지가 80세 부인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때 마이클 비보나(26)가 나타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부부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묻지 마 폭행’이 발생하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 비보나를 붙잡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폭행을 당한 노부부는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이 집까지 차로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사양하고 스스로 걸어갔다. 경찰은 비보나를 노인 학대와 증오 범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현지 언론에 “비보나는 자신이 인종적 동기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시안 커뮤니티에 일종의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동아일보, 2021, 04, 22).”

#### ⑤ 노인학대 예방과 벗어나기 위한 지원 노력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들은 우리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노인학대 사례의 심각성과 학대 방지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보도하였다. 먼저 서울신문(2021)의 경우 코로나로 취업이 어려워진 20·30대 자녀들이 60·70대 부모와 가정 내 불화가 노인학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담 인력을 대폭 늘리면서, 노인 가정에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안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향신문(2021)의 경우 고관절 탈구로 2년여 동안 요양병원 생활을 하다가 의료급여 관리사의 도움으로 병원을 탈출한 김 노인(69세)의 사례를 소개하며 김 노인은 요양병원을 나오고 싶어도 병원 측의 만류와 정확한 복지혜택을 몰라 탈출 후의 삶의 보장이 두려워 망설였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 기사

에서는 사회복지 정책 차원에서 노인요양 보호시설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코로나로 취업이 어려워진 20~30대 자녀들이 60~70대 부모들과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라며 “폭언·폭행 등 물리적 학대뿐 아니라 코로나를 핑계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버려두는 방임 학대도 두드러졌다”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전했다. …(중략)… 박 관장은 “대부분의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 많아 제대로 피해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감추기 때문에 직접 대면 외에는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취약 노인 가정에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안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써야 한다.”라고 제안했다(서울신문, 2021, 03, 03).”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뉴스 기사들은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현상을 ‘돌봄 부양의 어려움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노인학대 증가’, ‘노인돌봄 시설 및 시설 관계자의 심각한 노인학대’, ‘가족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와 노인 당사자의 소극적 대처’, ‘인종차별적인 노인학대 사건’, ‘노인학대 예방과 벗어나기 위한 지원 노력’으로 범주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 부양의 어려움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노인학대 증가’가 노인학대의 원인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 원인적 배경은 ‘노인돌봄 시설 및 시설 관계자의 심각한 노인학대’, ‘가족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와 노인 당사자의 소극적 대처’, ‘인종차별적인 노인학대 사건’이란 결과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위 뉴스 기사들은 ‘노인학대 예방과 벗어나기 위한 지원 노력’ 소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노인 학대 문제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 2. 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에 관한 인터넷 뉴스 기사를 수집해 노인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Elo와 Kyngäs(2008)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인은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절하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 절하적인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 원인은 사회 내, 가족 내 불 소통이 노인혐오를 조장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노인혐오 현상이 점차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내, 사회 내 노인 세대와 후세대 간 소통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전형 가족의 표준 모델인 핵가족 제도는 한 가족 내에서도 노인 세대와 자녀 및 손자녀 세대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며, 코로나 19 이후 일상화되고 있는 비대면 접촉의 소통 방식은 더욱더 가족 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시각, 감정이 상징화되는 노인의 이미지는 이러한 가족 내 불 소통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내 소통을 어떻게 늘려나가고, 잘할 수 있을 것인지가 노인을 가치 절하적 존재로 드러내는 혐오적 이미지를 줄여 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및 편견으로 인해 야기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노인들의 분노 표출’, ‘노인 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세대’란 결과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 세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 및 심각한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전개 시킬 수 있는 세대 간 이해관계를 구조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에게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는 노인 세대를 어떻게 통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노인차별의 경우, 이것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적 고정관념’이 노인차별의 원인적 배경이 되며, 이로 인해 ‘코로나 조치에 관한 노인차별’이란 결과가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최근 들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고령의 노인인구 집단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강화되면서, 뉴스 기사들이 코로나 19에 따른 정부의 조치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차별의 해소는 사회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 관련 제도와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거시적이고, 미시적 차원에서 다각도의 방법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 사회의 노인 학대는 ‘돌봄 부양의 어려움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노인학대 증가’는 원인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노인 돌봄시설 및 시설 관계자의 심각한 노인학대’, ‘가족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와 노인 당사자의 소극적 대처’, ‘인종차별적인 노인학대 사건’이란 결과적 현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인권적 권리의 주체이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개입 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노인 학대 증가



와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이 문제를 예방하고 발생한 노인 학대에 어떤 사후적 개입이 가능할지에 대한 방법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본 연구 결과 및 논의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 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차원의 3가지 제언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세대와 아동·청소년, 청년세대가 서로의 세대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한 연령통합 인식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대 간 연령 통합 인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 세대, 아동·청소년, 청장년 세대 개별 그리고 세대 간 상호 소통이 가능한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대 간 통합연령 인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으로는 연령과 생활양식에 상관없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과 사회참여, 여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천적 노력으로는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사회참여,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구성원의 부정적 인식과 노인차별, 노인학대 등의 다양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당사자들이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시민들의 집단적 힘을 통해 노인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적 주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당사자가 시민권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해 간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보장과 실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세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노인들이 시민권을 가진 주체라는 자기 인식과 이러한 자기 인식이 집단적 힘을 발휘하여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와 각종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노인의 시민의식 고양과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사회 옹호 프로그램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 청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노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청소년들과 청장년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8.15해방, 6.25 한국전쟁,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으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와 이 속에서 이루어진 근대화화 산업화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살아온, 70대 이상의 노인 세대의 삶을 이해하는 집중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 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본 연구의 뉴스 기사 내용은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회적 가치, 관점이란 시각적 틀이 암암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내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기술한다고 하여도, 기사를 작성한 사람의 내재적 가치와 세계관을 모두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 이외에, 좀 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좀 더 다각도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는 세대간 차이를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아동·청소년 세대, 20·30대의 청장년 세대, 40·50대의 중년 세대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세대별로 가지는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드러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연, 2022, “뉴노멀 시대 MZ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유형에 관한 연구”, 주관성 연구, 제59권, pp. 27-47.
- 김미혜, 2003,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분석”, 한국노년학, 제23권 1호, pp. 13-30.
- 김선영, 2007,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이미지분석-4개의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9권 2호, pp. 139-169.
- 김수진·김미혜·전혜연, 2019, “노인에 대한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이미지가 노인학대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 주관적 경제지위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제39권 2호, pp. 222-249.
- 김은표, 2021,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김영천·정상원, 2017, 『질적연구방법론 V』,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주현, 2009, “연령주의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 역사, 제82권 2호, pp. 361-391.
- 대한민국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2021-2025』, 대한민국정부.
- 문지영·김정원, 2004, “20대 남성의 이미지 추구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6권 6호, pp. 715-722.
- 보건복지부, 2020, 『노인학대현황보고서 가이드북』, 서울: 경성문화사.
-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양옥남·김혜경·박희옥·정순돌, 2017, 『노인복지론』, 고양: 공동체.
- 양혜승, 2022, “여성, 이주민, 노인 혐오성 댓글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네이버 범죄뉴스를 맥락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6권 3호, pp. 1-41.
- 유범상·이현숙, 2021, “노인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늙은이,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에서 선배시민으로”, 생명연구, 제61권, pp. 27-53.
- 이여주·송준아, 2021, “노인혐오에 대한 진화론적 개념분석”, 노인간호학회지, 제23권 1호, pp. 1-12.
- 이영민, 2022, 『시군구별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와 시사점 [전자자료] : 2000~2021년』, 세종: 국토연구원.
- 이윤경·김세진·황남희·임정미·주보혜·남궁은하·이선희·정경희·강은나·김경래, 2020,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혜영·윤현준·이병호, 2021, “마약류 중독자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상되고 있가?”, 생명 연구, 제61집, pp. 125-153.
- 전상남·신학진, 2009, “노인의 이미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제26권 6호, pp. 165-187.
- 장태한, 2002, “미국의 인종차별과 대외정책”, 역사비평, 제58권, pp. 320-340.
- 장희경·김혜영, 2013, “성인 자녀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3호, pp. 358-367.
- 정익재, 2013, “미디어의 과잉보도, 위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정책변화”, 한국거버넌스학보, 제20권 3호, pp. 331-349.
- 정진경, 2015, “노인 이미지 연구 경향 분석: 1990년 이후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35권 4호, pp. 1115-1139.
- 조인숙·김도연, 2017, “대학생의 노인 관련 미디어 관심도, 노인 이미지 및 정서와 노인 대상 행동 의향”, 한국방송학보, 제31권 3호, pp. 248-281.
- 최동호·오혜인·김준혁, 2020, “코로나 19, 노인만 격리하는 정책은 타당한가?”, 생명, 윤리와 정책, 제4권 2호, pp. 91-117.
- 최성호·정정훈·정상원, 2016,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제2권 1호, pp. 127-165.
- 홍현방, 2009,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이미지 탐색연구”, 노인복지학회, 제44권, pp. 327-343.
- 황미영, 2019, “매개접촉을 활용한 청소년의 연령차별주의 개선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51권 3호, pp. 151-183.
- 황성호·이명숙·이성국, 2011, “농촌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건강행태와 건강상태”, 농촌의학·지역보건, 제36권 4호, pp. 207-217.
- Elo, S., Kyngäs, H.,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 pp. 107~115.
- Johannesen, M., LoGiudice, D., 2013, “Elder abuse: A systematic review of risk factors in community-dwelling elders”, *Age and Ageing*, 42(3), pp. 292~298.
- Krippendorff, Klaus.,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Methodology Second Editi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Lincoln, Y. S.,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4th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rion.
- Nelson, T., D., 2005, “Ageism: prejudice against our feared future self”, *Journal of Social Issues*, 61, pp. 207-221.

국립국어원, 2022,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네이버 지식백과, 2022, “노인 [老人, the old, the aged] 교회용어사전: 교회 일상”,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2022, (<https://terms.naver.com>)

백세시대, 2021, “고령자 통계 발표”, (<https://www.100ssd.co.kr>)

국가법령센터, 2022, (<https://www.law.go.kr>)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

통계청, 2021,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https://kostat.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2021, “시설 내 노인학대 10년 새 9배 증가”,  
(<https://www.kihasa.re.kr>)

## How does the Social Image of the Elderly Appear?

Yoo, Soon Ho,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Dept. of Social Welfare, Special Professor  
Lim, Hae Young, Yemyung Graduate University, Social Welfare Major, Assistant Professor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social image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by exploring how the social image of the elderly is recognized and imaged. It also aims to provide basic data on what kind of social efforts are needed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o this end, this study used the 'BIG KINDS' program of the Korea Press Foundation to analyze news articles from 11 central daily newspapers for about 10 years from April 1, 2012 to March 31, 2022 in Elo and Kyngäs (2008) was analyzed using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5 subcategories and 60 concepts were derived from the four subject areas of 'Elder Hatred', 'Generation Conflict', 'Elder Discrimination', and 'Elder Abuse' in relation to the social image of the elder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points of discussion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negative social image of the elderly are presented.

Keyword : the elderly, image, social imag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

접 수 일 : 2023년 04월 08일

심사완료일 : 2023년 04월 27일

게재확정일 : 2023년 05월 28일



글로벌융합복지

The 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Welfare

2023. 5. 제1권 1호 : 93-114

##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연구\*

이한나\*\*

### 국문 초록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경쟁의 연속에서 학업과 과중한 과제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삶의 만족감에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자본'과 공동체와의 신뢰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사회자본'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보다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21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 발생 후 1년을 넘기는 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청소년들의 삶에 큰 혼란을 주었다.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등교를 중단하여 또래와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생활 리듬도 깨졌으며, 대면을 통한 교제나 여가활동들 또한 중지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라졌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 사이에서 사회자본의 매개역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에 따라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문화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삶의 만족감

\* 이 논문은 이한나의 2023년 박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 서정대학교 글로벌융합복지과 외래교수



## I. 서론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은 학업과 입시경쟁 스트레스로 삶의 만족감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문화여가활동인 문화자본과 또래 중심인 청소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자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에 관한 주요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미술관이 나 콘서트 관람, 문화유적지방문 등과 같은 문화 활동은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ichalos, 2005; 김서용·김혜선, 2007),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 경험이 있는 그룹이 경험이 없는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좀 더 다양한 문화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에 더 만족하고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and Kim, 2009). 또한, 문화적 활동의 빈도와 문화 경험의 다양성 역시 행복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서용·김혜선, 2007; 장혜진, 2014),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화자본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무성·김은아, 2013).

문화자본은 삶의 만족감 외에 사회자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술 활동이 사회적 통합, 공동체 역량 강화, 지역 정체성과 같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기여함을 제시하였고(Matarasso, 1997), Guetzkow(2002)는 문화예술활동이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격자형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Guetzkow, 2002). 또한,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나린(2021)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회자본인 사회활동 참여가 문화자본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문화자본이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회자본이 문화자본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에서는 문화자본과 사회활동 참여를 나타낸 사회자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김나린,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자본과 공동체와의 신뢰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이에 따라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자본이 삶의 만족감 관계에서 사회자본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1년은 시기적인 특성으로 코로나19가 발생 후 1년 남짓 지난 시점이어서 감염 예방으로 인한 거리두기와 문화예술체육활동이 모두 중지되거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의 청소년 사회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은 여전히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청소년의 문화자본은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사회자본이 매개효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삶의 만족감의 개념과 구성요인

삶의 만족감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자아 관념을 긍정적으로 가지면서 자신의 목표성취를 느끼고, 매일 생활에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다(Neugarten and Tobin, 1961). 삶의 만족감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으로서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현실을 비교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나성운, 2017). 이러한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으로는 인간관계, 경제적 안녕, 자기조절, 행복한 가정, 성취, 물질적 환경, 건강과 안전, 정서적 안녕, 자신에 대한 만족,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환경, 종교 외모, 긍정적 인생관 등이 있다(나성운, 2017).

### 2. 문화자본의 개념과 구성요인

문화자본이란 사회적으로 물려받은 계급적 배경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문화적 취향을 의미한다고 프랑스 사회학자인 부르디외가 개념화하였다(Bourdieu, 1986). 이러한 문화자본은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력, 문화의 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상징적 권위, 공공 제도가 부여하는 권력의 행사, 교육과 계급에 따라 축적된 문화적 취향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Bourdieu, 1986). 김영종·이재호(2010)는 문화자본을 역사적·예술적 자원을 통해 보전될 수 있고, 매력을 주어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자본이라고 하였고, 또,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체험해서 얻은 언어 형태라고 정의하였다(김석환, 2014). 이러한 개념을

통해 문화자본은 습득한 성향이나 습관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으로 한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 속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가정교육의 영향, 공식적인 교육의 효과, 현재의 계급에 도달하기까지의 삶의 흔적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장미혜, 2001). 즉, 언어규칙, 상징, 사고, 취향, 성향 등 투자와 축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형태로도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김경근 외, 2007).

이러한 문화자본의 개념 아래 Bourdieu(1986)는 문화자본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첫째,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으로 기술이나 지식, 교양, 취향처럼 축적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형태이다.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몸과 생각 속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성향으로, 지식과 기술을 비롯한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교양, 말씨, 매너, 품위, 패션, 세련됨, 취향 등을 의미한다. 둘째, '객관적 상태의 문화자본'으로 신문 책이나 그림, 물건이나 악기 등의 형태이다. 객관적 상태의 문화자본은 책, 그림, 악보, 기계, 물건, 사진, 악기 등과 같이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체화된 문화자본을 통하여 책이나 그림 등의 객관적 상태인 문화자본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으로 학위나 자격증, 졸업장 같은 형태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상징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교육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격증이나 학위 같은 학력과 같은 것으로, 학교제도에 의해 주어지는 학력과 다양한 개인적 능력이나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Bourdieu, 1986). 문화자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DiMaggio(1982)는 문화자본의 구성요소를 활동, 태도, 정보로 구분하였는데, 활동은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와 선호도를 의미하고, 태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양을 의미하며, 정보는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해진 외(2013)는 DiMaggio(1982)가 문화자본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한 문화 소양, 문화 활동, 문화 지식의 세 가지로 구분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 중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화 활동 요소는 개인이 실제로 문화 활동에 참여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참여하는 정도가 수치적인 형태로 표현되며(DiMaggio, 1982), 문화 활동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는 클래식, 연극, 미술 전시회 등을 포함하는 공연 관람과 독서, 예절, 축구, 농구, 야구, 요가, 헬스 등과 요리, 쇼핑 활동 등이 대표적인 요소로 표현된다.

### 3. 사회자본의 개념과 구성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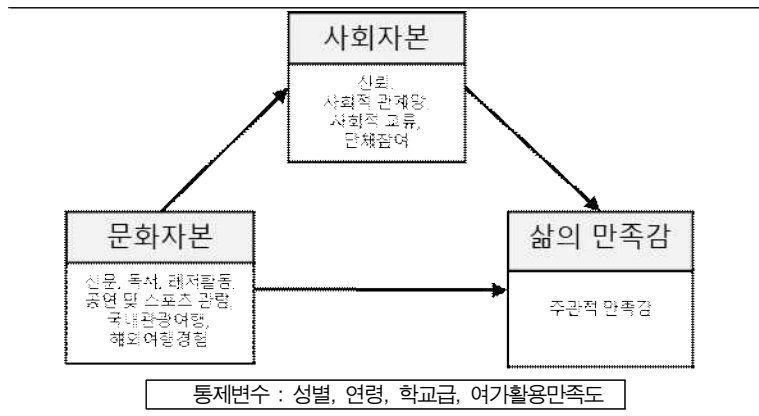
사회자본은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개인, 집단, 사회, 국가 등 상호 간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강조되는 무형의 자산이다(Coleman, 1988).

즉, 사회자본이란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의지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본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이나 친밀감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가족, 학교, 직장 등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언제든지 창출될 수 있다(강유진, 2010). 또한,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망의 결과물이다. 사회자본의 양은 개인이 끌어들이 수 있는 관계망 규모와 그 관계망에 포함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크기에 따른다(성기옥, 2016). 이처럼 사회자본을 도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개인이 사회자본을 통해 주변 자원을 자기의 이해관계에 얼마나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동원하는가를 사회자본의 정도로 측정한다(김대건·김동철, 2014). 사회자본의 개념을 사회과학 분야에 일반화시킨 것으로 유명한 Putnam(1995)은 사회자본을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 및 협력을 촉진하는 규범과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시민적 참여의 연결망인 네트워크가 협력과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사회구성원을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신뢰와 규범,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물질적인 자원의 양이나 질과는 별개로 높은 의무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시민은 실제 개인이 인식하는 자본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Grootaert 외(2003)는 사회자본을 집단, 네트워크, 규범, 신뢰로 구성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구성요소는 신뢰, 참여, 네트워크, 제도 및 규범에 기반한 요소들이 있으며, 상호 간 인과관계가 있다(이규환 외, 2008).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문화자본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독립변수에 문화자본, 매개변수에 사회자본을 설정하여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음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연구문제1. 청소년의 문화자본은 삶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문화자본은 사회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 가설1. 청소년의 문화자본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2. 청소년의 문화자본이 높아질수록 사회자본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3.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 관계에서 사회자본은 매개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1년 사회조사(청소년)」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중에 삶의 만족감 자료는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단일문항을 사용하였고, 사회자본 자료는 신뢰, 사회적 관계망, 단체참여에 대한 조사를 활용하였다. 문화자본 자료는 신문, 독서,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국내 관광여행, 해외여행 경험 항목을 조사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선정하여 전국 약 19,000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가구원 36,000여 명 중에 중학생 930명, 고등학생 1,135명으로 총 2,065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 3. 측정도구

#### 1) 독립변수: 문화자본

청소년의 문화자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사용한 「2021년 사회조사(청소년)」 중, 문화자본 요목에 해당하는 하위변인으로 신문, 독서,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국내 관광여행, 해외여행 경험의 6개의 하위변수 총 29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 2) 매개변수: 사회자본

청소년의 사회자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위변인으로 신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교류, 단체참여로 4개 항목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1차 측정변수를 하위요인별로 신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교류, 단체참여에 대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을 합산하여 측정변수로 활용하였고, 4개 항목 중에 단체참여 변수의 세부 항목으로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총 6개 문항을 구성해 문항별로 각 점수화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 3) 종속변수: 삶의 만족감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단일 문항으로 “귀하는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매우 만족한다’부터 ‘매우 불만족한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를 역코딩하여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하고 ‘매우 불만족한다’를 1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학교급, 여가활용만족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의 변인 간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별과 학교급은 명목변수이므로 남=0, 여=1로 더비변

\* 연령은 생년월일을 응답하여 만연령으로 수집되었으나, 본 논문에 표기에서 이하는 ‘연령’으로 기재함을 밝힌다.

수로 변환하고, 연령은 생년월일을 응답한 내용을 기준으로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학교급은 재학 상태를 사용하여 중학교=0, 고등학교=1로 변환하였으며 여가 활용만족도는 “평소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단일 문항으로 ‘매우 만족한다’부터 ‘매우 불만족한다’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를 역코딩 하였고,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하고, ‘매우 불만족한다’를 1점으로 수정하여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용만족도가 높게 평가되도록 설정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22.0 통계 프로그램 및 Process Macro tablet 4.를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사용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에 대해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와 정규성 분포를 하여 확인하였다.

셋째, 주요변인에 대한 평균차이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통제변인을 포함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Process Macro의 tablet 4.로 매개효과 검정 방식을 활용하여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산출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학교급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빈도를 보면, 남학생이 50.4%, 여학생이 49.6%로 응답하였고, 연령에 따른 빈도는 13세가 2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8세가 8.3%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는 중학생이 45.0%, 고등학생이 55.0% 응답하였다. 빈도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18세가 가장 적고 연령이 많을수록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높은 이유는 본 조사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연령을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2,065)

항목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1,040	50.4
	여	1,025	49.6
소계		2,065	100.0
연령	13세	420	20.3
	14세	358	17.3
	15세	363	17.6
	16세	396	19.2
	17세	356	17.2
	18세	172	8.3
소계		2,065	100.0
학교급	중학생	930	45.0
	고등학생	1,135	55.0
소계		2,065	100.0

##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들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문화자본	사회자본	삶의 만족감
최소값	0	1	1
최대값	17	26	5
총범위	0-29	0-30	1-5
평균	4.07	10.59	3.56
표준편차	2.537	5.366	1.015
왜도	통계량	1.319	.614
	표준오차	.054	.054
첨도	통계량	2.531	-.201
	표준오차	.108	.108



먼저, 문화자본은 신문(2항목), 독서(5항목), 문화예술스포츠관람(8항목), 레저 시설 이용(9항목), 국내 관광여행(1항목), 해외여행 경험(4항목)으로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항목을 점수화하여 0-29까지의 범위가 생성되었다. 범위 내에 최소값은 0점으로 모든 항목에 없으므로 응답한 경우이고 최대값은 17점으로 총 범위의 분포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평균은 4.07점, 표준편차는 2.537, 왜도는 1.319, 첨도는 2.531로 정규분포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은 신뢰(1항목), 사회적 관계망(1항목), 사회적 교류(1항목), 단체참여(6항목)로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항목을 점수화하여 0-30까지의 범위가 생성되었다. 사회자본의 최소값은 1점이고 최대값은 26점으로 문화자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총 범위의 분포에 못미치는 점수로 나타났다. 평균은 10.59점, 표준편차는 5.366, 왜도는 .614, 첨도는 -.201로 정규분포가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감은 주관적 만족감을 묻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총 범위가 1-5까지 설정되었다. 응답의 최소값은 1점이고, 최대값은 5점이다. 평균은 3.83점, 표준편차 1.015점, 왜도 -.193, 첨도 -.642로 정규분포가 확보되었다. Kline(2003)의 기준에 따라 왜도는 3이하, 첨도는 10이하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 3. 상관 분석

본 연구는 주요 변인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이며, 관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교급, 여가활용만족도가 사용되었고, 주요 변인으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삶의 만족감을 사용하여 다음 <표 3>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3> 변수간 상관 분석

	성별	연령	학교급	여가활용 만족도	문화자본	사회자본	삶의 만족감
성별	1						
연령	-.006	1					
학교급	-.026	.830***	1				
여가활용만족도	-.050*	-.070**	-.084***	1			
문화자본	.099**	-.113***	-.090***	.092***	1		
사회자본	.043*	.032	.030	.197***	.182***	1	
삶의 만족감	-.021	-.069**	-.057***	.486***	.054*	.215***	1

\* $p < .05$ , \*\* $p < .01$ , \*\*\* $p < .001$

reference group: ①성별-남, ②학교급-중학교

## 1) 통제변수 상관 분석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요인은 연령( $r=-.006$ ), 학교급( $r=-.026$ ), 여가활동 만족도( $r=-.050$ ,  $p<.05$ ), 문화자본( $r=.099$ ,  $p<.001$ ), 사회자본( $r=.043$ ,  $p<.05$ ), 삶의 만족감( $r=-.021$ )으로 나타나므로 여가활동만족도, 문화자본, 사회자본에 대해 유의미하며,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하여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요인은 성별( $r=-.006$ ), 학교급( $r=.830$ ,  $p<.001$ ), 여가활동 만족도( $r=-.070$ ,  $p<.01$ ), 문화자본( $r=-.113$ ,  $p<.001$ ), 삶의 만족감( $r=-.069$ ,  $p<.01$ )으로 나타나므로 학교급, 여가활동만족도, 문화자본, 삶의 만족감에 대해 유의미하며, 학교급에 대하여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의 요인은 성별( $r=-.026$ ), 연령( $r=.830$ ,  $p<.001$ ), 여가활동만족도( $r=-.084$ ,  $p<.001$ ), 문화자본( $r=-.090$ ,  $p<.001$ ), 사회자본( $r=.030$ ), 삶의 만족감( $r=-.057$ ,  $p<.01$ )으로 나타나므로 연령, 여가활동만족도, 문화자본, 삶의 만족감에 대해 유의미하며, 연령에 대하여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만족도의 요인은 성별( $r=-.050$ ,  $p<.05$ ), 연령( $r=-.070$ ,  $p<.01$ ), 학교급( $r=-.084$ ,  $p<.001$ ), 문화자본( $r=.092$ ,  $p<.001$ ), 사회자본( $r=.197$ ,  $p<.001$ ), 삶의 만족감( $r=.486$ ,  $p<.001$ )으로 나타나므로 성별, 연령, 학교급, 문화자본, 사회자본, 삶의 만족감에 대하여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문화자본, 사회자본, 삶의 만족감에 대하여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요 변수의 상관 분석

연구대상자의 문화자본 요인은 성별( $r=.099$ ,  $p<.01$ ), 연령( $r=-.113$ ,  $p<.001$ ), 학교급( $r=-.090$ ,  $p<.001$ ), 여가활동만족도( $r=.092$ ,  $p<.001$ ), 사회자본( $r=.182$ ,  $p<.001$ ), 삶의 만족감( $r=.054$ ,  $p<.05$ )으로 나타나 문화자본이 성별, 연령, 학교급, 여가활동만족도, 사회자본, 삶의 만족감에 대해 모두 유의미하며, 성별, 여가활동만족도와 사회자본, 삶의 만족감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요인으로서는 성별( $r=.043$ ,  $p<.05$ ), 연령( $r=.032$ ), 학교급( $r=.030$ ), 여가활동만족도( $r=.197$ ,  $p<.001$ ), 문화자본( $r=.182$ ,  $p<.001$ ), 삶의 만족감( $r=.215$ ,  $p<.001$ )으로 나타나 성별, 여가활동만족도, 문화자본, 삶의 만족감에 대해 유의미하며, 성별, 여가활동만족도, 문화자본, 삶의 만족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감의 요인은 성별( $r=-.021$ ), 연령( $r=-.069$ ,  $p<.01$ ), 학교급( $r=-.057$ ,  $p<.01$ ), 여가활동만족도( $r=.486$ ,  $p<.001$ ), 문화자본( $r=.054$ ,

$p<.05$ ), 사회자본( $r=.215$ ,  $p<.001$ )로 나타나 삶의 만족감이 연령, 학교급, 여가활동만족도, 문화자본, 사회자본에 대해 유의미하여, 여가활동만족도, 문화자본, 사회자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고 Process Macro tablet 4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종속변수를 사회자본으로 하였을 때 회귀분석 모형적합도와 결과를 분석하고, 둘째, 종속변수를 삶의 만족감으로 하였을 때 회귀분석 모형적합도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통해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 1) 문화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3]에 대한 검증으로,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은 매개 영향을 파악하고자, 성별, 연령, 학교급, 여가활동만족도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문화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process macro 검정결과)

변수		B	SE	$\beta$	t	p	LLCI	ULCI
상수		2.184	1.366		1.598	.110	-.496	4.865
통제 변수	성별	.137	.127	.041	1.078	.281	-.112	.387
	연령	.399	.229	.037	1.740	.082	-.050	.849
	학교급	.301	.411	.028	.733	.463	-.504	1.107
	여가활동 만족도	.993	.113	.188	8.795***	.000	.772	1.215
독립변수	문화자본	.356	.045	.168	7.815***	.000	.267	.445
R		.267						
R <sup>2</sup>		.071						
F		31.753***						
p		.000						

\* $p<.05$ , \*\* $p<.01$ , \*\*\* $p<.001$

bootstrapping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기준

reference group: ①성별-남, ②학교급-중학교

문화자본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며, 문화자본이 사회자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68, p<.001$ ).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연령, 학교급과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여가활동 만족도( $\beta=.188, p<.001$ )와 문화자본( $\beta=.168, p<.001$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여가활동만족도가 사회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연령, 학교급 등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여가활동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독립변수인 문화자본이 매개변수인 사회자본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함( $p=.000$ )을 확인하였다.

## 2) 문화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1]에 대한 검증으로, 문화자본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여가활동만족도를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문화자본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process macro 검정결과)

변수	B	SE	$\beta$	t	p	LLCI	ULCI
상수	2.225	.232		9.590***	.000	1.770	2.680
통제변수	성별	-.046	.021	-.073	-2.147*	.031	-.088
	연령	-.003	.039	-.001	-.094	.925	-.080
	학교급	.076	.069	.037	1.092	.274	-.060
	여가활동만족도	.458	.019	.459	23.489***	.000	.420
독립변수	문화자본	-.006	.007	-.016	-.814	.415	-.021
매개변수	사회자본	.024	.003	.128	6.519***	.000	.017
R	.024						
R <sup>2</sup>	.253						
F	116.340***						
p	.000						

\* $p<.05$ , \*\* $p<.01$ , \*\*\* $p<.001$

bootstrapping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기준

reference group: ①성별-남, ②학교급-중학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을 도출한 결과, 성별( $\beta=-.073, p<.05$ ), 여가활동만족도( $\beta=.459, p<.001$ )와 사회자본( $\beta=.128, p<.001$ )이 삶의 만족감에 대해 유의미함을 나타냈다. 통제변수 중,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활동만족도는 평균 초과일 경우에 삶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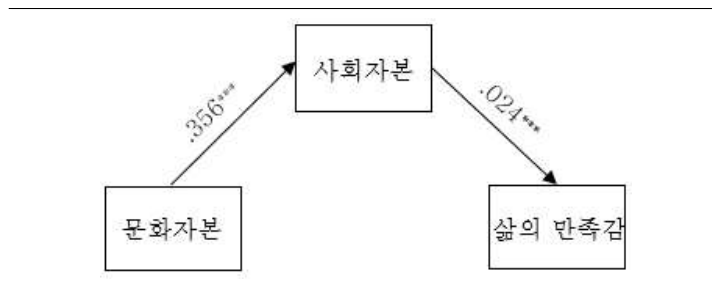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통제변수인 연령, 학교급과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변수를 보면 사회자본은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문화자본은 삶의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자본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가설1]의 조건을 충족되지 않았으며,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문화자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자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2]에 대해 검증되었다.

### 3)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가설3]에 대한 검증으로, 독립변수(문화자본)와 매개변수(사회자본), 종속변수(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의 총 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에 대한 결과로 다음 <표 6> 및 [그림2]와 같다.

<표 6> 매개효과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분석단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독립 → 종속	.002	-.006	.008
독립 → 매개		.356	
매개 → 종속		.024	



[그림 2] 연구결과 모형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문화자본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적인 효과에서  $\beta = -.006$ 으로 나타나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간접효과가  $\beta = .008$ 로 나타났고, 총 효과가  $\beta = .002$ 로 나타나 문화자본이 삶의 만족감에 직접적인 효과는 미치지 않았으나 사회자본을 매개로 하여 정(+)-의 효과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문화자본)와 매개변수(사회자본)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

향이  $\beta=.356(p<.001)$ 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사회자본)와 종속변수(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도  $\beta=.024(p<.001)$ 로 나타나 매개변수(사회자본), 종속변수(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가 유의하며 정(+)의 관계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청소년의 문화자본은 사회자본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사회자본은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함의

### 1. 가설검증 결과

청소년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가 설 설 정	채택여부
가설1. 청소년의 문화자본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2. 청소년의 문화자본이 높아질수록 사회자본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3.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은 매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의 검증 결과는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가설2]의 검증 결과로는 문화자본이 사회자본에 정(+)의 효과를 나타냈으므로 채택하였다.

[가설3]의 검증 결과, 문화자본이 사회자본에 정(+)의 효과를 나타냈고, 매개역할을 하는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감에 정(+)의 결과를 도출하여 이 가설을 채택하였다.

### 2. 분석결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자본에 따른 삶의 만족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문화 활동은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Michalos(2005)와 김서용·김혜선(2007)의 연구, 문화적 경험이 있는 그룹이 경험이 없는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Kim과 Kim(2009)의 연구, 문화적 활동의 빈도와 문화 경험의 다양성이 행복과 관계가 높다고 밝힌 김서용·김혜선(2007)과 장혜진(2014)의 연구와 일치하지 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문화복지 참여에 따른 문화자본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 정무성과 김은아(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문화자본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청소년의 문화자본이 코로나19 이후로 줄었으며, 형태나 질 역시 바뀌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문화예술·스포츠 관람은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음악회·연주회·콘서트·스포츠경기관람에서도 제한을 받았고, 인원 제한 하에 관람한다고 해도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경험하는 문화예술관람이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위험 감수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엔 없었던 온라인 관람이 등장하였는데 송출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관람한다고 하여도 현장에서 관람하는 것과 관람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단절된 문화자본을 회복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라는 특성이 청소년의 문화자본을 대다수 단절시켰으나,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문화자본의 질에 대해 재점검하고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이후에 청소년의 문화자본이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문화자본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자본을 높이는데 문화자본이 기여함을 검증하였다. 이는 예술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밝힌 Matarasso(1997)의 연구결과와 문화예술이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Guetzkow(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자본이 청소년의 특성상 혼자서 할 수 있는 문화·여가활동보다는 또래나 가족 등 함께하는 문화·여가활동이 더 많이 제공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악기 활동이나 미술, 스포츠 활동, 여행, 관람, 체험학습 등의 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들은 지도자나 경쟁자, 동료 학습자, 안내자 등과 함께하는 활동들로, 이러한 문화자본을 활용할 때, 그 안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생길 수 있고, 함께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범과 예의를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을 높이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여가활동 콘텐츠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

셋째,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 결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사회활동 참여는 문화자본과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밝힌 김나린(2021)의 연구와 유사하다. 다만, 김나린(2021)의 연구에서는 2021년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문화자본이 삶의 만족감에 대한 사회자본의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사회자본이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자본이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해 더 이상 삶의 만족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사회자본을 통해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므로 사회자본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문화자본을 통해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자본이 사회자본을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문화자본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성을 포함하여 사회자본을 높이는 활동일 경우, 삶의 만족감에 더 큰 긍정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또래나 주변인이 중요한 청소년에게 문화·여가활동은 혼자보다는 함께해야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자본은 그 자체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친구나 또래 모임이 중요한 청소년들의 특성상 사회자본을 매개로 하였을 때 간접영향을 발휘하여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사회자본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프로그램 또는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연구나 매개효과를 고려하는 연구에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함의 및 한계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함의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청소년의 문화자본의 회복과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수원시청소년재단(2020)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여행(53.5%)’을 꼽았고,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는 ‘동아리 활동(19.4%)’과 ‘여행 및 야외캠프(18.8%)’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특성이 청



소년의 문화자본을 대다수 단절시켰으나,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문화자본의 질에 대해 재점검하고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입시경쟁 속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자본을 늘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순성(2010)은 취미, 교양, 관람, 감상형 등의 여가 참여 활동을 늘리고 개인적인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에서의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클럽 등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제언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정규시간에 문화 활동을 포함시켜 이를 통해 여유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외국의 중·고등학교들을 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만족감을 위해 1인 1악기를 필수로 하며, 체육활동에도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교내 오케스트라 활동과 팀별 스포츠 활동을 필수로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문화자본의 역할도 하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문화 활동이므로 사회자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을 더불어 고등학생들의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0교시를 활용하여 문화 활동을 필수적으로 포함 시키려는 학교의 노력의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자본을 높이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여가활동 콘텐츠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은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감의 원천이 된다. 청소년의 문화 여가활동은 개인적으로는 창조적 활동과 심신의 건강과 삶의 만족감을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집단으로 구성된 문화 여가활동은 공동체 속에서 경쟁과 협력을 하면서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이루어낸다. 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의 문화자본은 사회성이 포함될 때, 삶의 만족감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진다는 것을 드러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포함한 단체 활동의 유형인 문화자본을 이용한 봉사활동이나 챌린지 활동 등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 콘텐츠를 늘려야 할 것이다.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도 이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는데, 교사 중심의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 중심의 동아리 활동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데이터의 특성상 통제 변인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청소년 삶의 만족감에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실행하였으나,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지 못하였다. 특히,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변수는 삶의 만족감과 문화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 학교생활에 관련된 변인

들은 삶의 만족감과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여겨지는데, 이 연구의 자료가 사회조사라는 2차 데이터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연구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환경적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청소년 삶의 만족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계속 발전하고 확장 되어져 가야 할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코로나19 시기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향후 연구는 보다 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실태 중심으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실시한 척도 측정의 방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강유진, 2010, “가족 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제21권 3호, pp. 323-339.
- 김경근·변수용, 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1호, pp. 23-51.
- 김나린, 2021, “노인의 문화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건강증진행위와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 칼빈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대진·김동철, 2014,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성과 시민참여 의식 관계 분석-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제18권 1호, pp. 243-265.
- 김서용·김혜선, 2007, “좋은 정부, 좋은 정책: 제1회의; 문화정책과 문화자본: 문화자본은 중요한가?-문화격차와 주관적 안녕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석환, 2014,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가정환경요인분석: 경제, 문화,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종 이재호, 2010, “문화도시 이미지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2권 4호, pp. 1019-1039.
- 나성윤, 2017,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기옥, 2016, “노후불안과 자아통합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모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성재, 2015, “행복,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제1권 6호, pp. 49-50.
- 이규환·남상우, 2008, “사회적 자본 개념요소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0권 1호, pp. 207-228.
- 이진숙·김은주, 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제22권 5호, pp. 433-445.
- 장미혜, 2001. “소비양식에 미치는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상대적 효과: 서울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혜진, 2014, “자기효능감, 가족사회자본과 사회관계 및 문화자본이 농촌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전혜진·김수정·최선헌, 2013,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문화자본에 관한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제14권 3호, pp.157-190.
- 정무성·김은아, 2013 “문화복지 참여에 따른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0권 3호, pp. 141-159.
- 조성연·김혜원·김민, 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화가정학회, 제49권 3호, pp. 87-98.
- 한세희·김연희·이희선, 2010,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 제44권 3호, pp. 37-59.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s*, New york: Grenwod Pres.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 95-12.
- DiMaggio, Paul,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pp. 189-210.
- Grootaert, C. and Narayan, D. and Jones V. N. and Woolcook M., 2003, “Integrated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SC-IQ)”, *The World Bank. Social Capital Thematic Group*.
- Guetzkow, J., 2002, “How the Arts Impact Communities: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n Arts Impact Studies, Center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20.
- Kim, S. and H. Kim, 2009, “Does Cultural Capital Matter?: Cultural Divide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 pp. 295-313.
- Matarasso, F., 1997,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Comedia.
- Michalos, A. C., 2005, “Arts and the quality of life: An exploratory study”, *Social Indicator Research*, 71, pp. 11-59.
- Neugarten, B. L. and Havighurst, R. T. and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pp. 134-143.
- Putnam, R. D.,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December).

# A Study on the mediated effect of soci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cultur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Lee, Hannah, Seojeong University

## Abstract

In Korean society, adolescents' life are threatened with life satisfaction due to stress from their studies and heavy tasks in a series of competition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cultural capital" that improv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capital" that improves self-esteem through trust with the community affect teenagers' satisfaction in life, and accordingly, social capital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s cultur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is to derive measure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life of adolescents and provide a healthier life. For this purpose, statistics from 2021 were used to find out how cultur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affect life satisfaction for teenagers aged 13 to 18. In particular, 2021 is more than a year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and social changes caused by COVID-19 have caused great confusion in the lives of teenager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nfection,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peers has been reduced, the rhythm of life has been broken due to online classes, and face-to-face dating and leisure activities have also been suspended, eliminating factors that can relieve stress. In this social environment, we examined how social capital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youth's cultur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nd presented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Keyword: adolescent, cultural capital, social capit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satisfaction in life

---

접 수 일 : 2023년 04월 03일

심사완료일 : 2023년 05월 03일

게재확정일 : 2023년 05월 08일



## 노인의 건강상태지각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노후 준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재곤\*\*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노화를 상실과 쇠락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노화를 수용하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점에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4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창출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지각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검증 1, 2단계에서 독립변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2단계에서 나타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3단계에서 감소되어, 매개변수인 노후준비의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건강상태의 설명력보다, 노후준비가 투입되었을 때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설명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상태지각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후준비를 통하여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 노인, 건강상태지각,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 이 논문은 최재곤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 1. 서론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압축적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노인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의 심각성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7년 기준 42.2%이며(통계청, 2019),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 당)은 2017년 기준 47.7명으로(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OECD 국가 중 모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는 노인인구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보다는, 도래하는 고령화 사회를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지 못한 사회·환경적 책무이기도 하다.

노인인구 변화에 우리사회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고령자의 유병률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이는 노인문제를 유발하여 결국에는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이다(석재은, 2013). 즉, 노인의 수명 연장은 개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소원이나 축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 경제력 상실 및 역할상실 등으로 인한 인구,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되어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노인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신체, 정신, 심리, 사회적 건강의 저하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의 죽음,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역할상실, 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등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신체적 독립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며,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함에 필요한 것으로 특히, 노년기 건강상태는 노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노인의 건강은 노화과정과 그에 따르는 변화를 고려한 인체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 신체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 함께 다루어야 한다. 성공적인 노화란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생활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 간에 조화된 견해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홍현방, 2001).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 현상으로 전생애 발달관점의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년기 삶에 대한 인식 고조로 어떻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것인가 즉,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동배, 2008; 홍성희·곽인숙, 2011).

노인들에게 있어 노화 과정에 따른 건강 상태 변화 및 기능의 약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선우덕, 2015). 그러나 성공적인 노화란 질병과 장애가 없고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인생 참여를 지속하는 것으로, 이는 긴 인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고 한다(정옥분 외, 2008). 성



공적 노화의 개념이 등장하던 초기에는 신체적 건강을 중시하고 있었으나, 점차 심리·사회적 측면으로 확대되어 변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노인에 대한 연구에서 상실과 쇠락에 집중되었으나, 성공적 노화는 전 생애 발달의 관점에서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 개인적 측면에서도 유용한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다(정여진·안정신, 2012). 노년기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공적 노화는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Fisher & Specht, 1999; Phelan et al., 2004). 또한 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태, 사회적 요인으로 원만한 가족관계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김경연·정여진, 2006; 장재원, 2013; DeHaan & Kasozi, 2013).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은 남자는 79.3세, 여자는 85.4세이며, 건강수명은 남자는 64.7세, 여자는 65.2세로 보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이러한 수치는 남자는 약 15년, 여자는 20년 이상을 질병이나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평균 80년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개인의 일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즉, 노년기에 대한 경제, 신체, 심리·사회적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20년 이상을 불행하게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노후생활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김동배 외, 2011). 많은 연구들에서 성공적 노화는 노후준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문제들을 미리 예측 또는 예방하며,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미령, 2017). 즉,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미리 갖추는 것으로서(박창제, 2017), 성공적 노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홍영준·이정훈, 2014).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련성으로 노후준비의 정서적 측면,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인간관계, 취미생활 등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이소정, 2011), 정서적 노후준비는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도에 비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와 예측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주장도 있다(박현식, 2012).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한국노인의 건강상태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노후준비가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건강한 노인일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건강한 노인일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으며, 노후준비도가 높은 노인은 성공적 노화가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노인건강과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 간의 직접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로서, 노인의 건강상태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노후준비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4차(2013년)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1,288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건강상태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노후준비의 매개역할을 밝힘으로써,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상실과 쇠락의 차원이 아닌, 긍정적인 차원에서 노년기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인의 건강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들 간의 관계를 노후준비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을 성공적 노화로 이끌기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건강상태지각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노인의 건강상태지각과 노후준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노인의 노후준비지각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섯째, 노인의 노후준비는 건강상태지각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의 건강과 성공적 노화

고령화 현상은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길어진 노후에 대한 적응과 대처의 방안으로 성공적 노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의 노년학 연구에서는 노인의 부정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었으나 신노년학에서는 노인을 경험이 풍부하고,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성공적 노화를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미령, 2017). 이에 따라 성공적 노화는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며, 더 나아가 노인 가족과 국가의 부양부담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공

적 노화에 대해 과거에는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며, 자녀의 부양을 자랑스러워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성공적 노화는 건강관련 생활습관이 좋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 및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적 활동이 활발할수록, 자녀관계 만족도 및 초월감 정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지원, 2014). 이렇듯 여러 연구들에서 신체적 건강이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으나 노인의 건강과 경제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건강한 부유집단과 병약한 부유집단, 빈곤집단 간의 비교연구에서 건강·부유집단은 건강, 긍정적 사고, 취미생활, 경제력, 친구 또는 배우자의 존재를 들었으며, 병약·부유집단은 건강, 긍정적 사고, 경제력, 자녀의 성공, 취미생활, 친구 또는 배우자의 존재를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들었다. 그러나 빈곤집단은 건강, 경제, 긍정적 사고만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연·정여진, 2006). 성공적 노화에 사회적 관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서구의 노인과는 달리 국내 노인의 사회적 관계 기본단위는 ‘가족’이다.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 및 지지망은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 직계가족의 관계로 보고하고 있다(정여진·안정신, 2012). 또한 자녀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접촉빈도도 성공적 노화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성공적 노화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였으며,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원보다는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더 중요시하였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노부모와 자녀 간의 사회적 지원의 교환에 있어서는 자녀에게 제공한 지원은 성공적 노화의 가능성을 높여주었지만, 반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노부모의 인지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현숙·유희정, 2006).

## 2. 노인의 건강과 노후준비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이르기 전에 행하는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을 위한 포괄적인 준비행위로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준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노년기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전쟁직후 사회적 경향에서 태어나 전쟁의 피해복구, 경제적 성장,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인하여 정작 본인들의 노후준비는 못한 채 노년기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장년기에 해당하는 세대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여자가, 고학력자 일수록, 종교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정서적 준비를 잘하고 있었으며, 여자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신체적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기복,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후 공동체의식과 사회참여태도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강향미·구종희, 2014), 같은 맥락으로 베이비부머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월평균소득, 노후태도, 그리고 노후불안이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노후태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노후불안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았다(유용식,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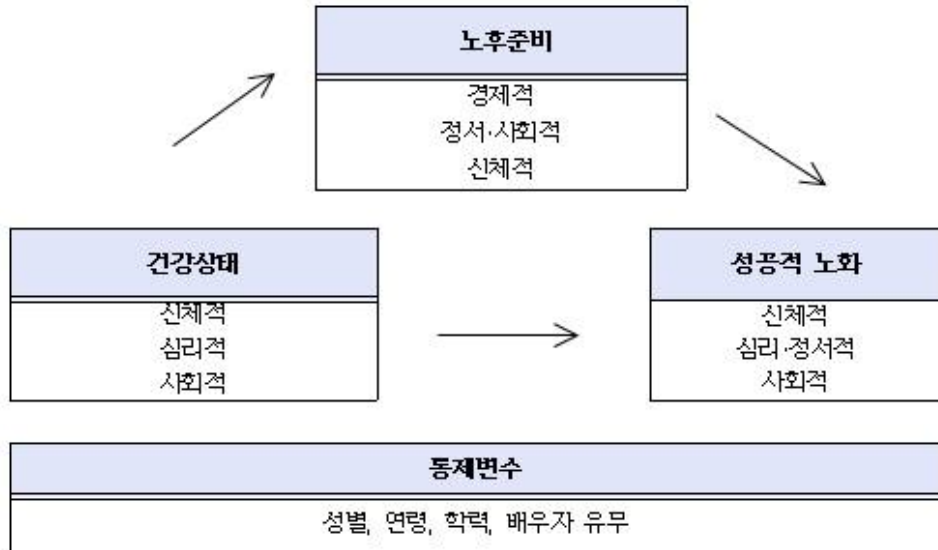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년층은 노년기를 위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정도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노후준비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들은 중년층 및 베이비부머를 대상을 중심으로, 성공적 노화는 중년 이후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SOC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결과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직결됨을 보고하였다(박성준, 2016). 또한 성공적 노화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공적 노화의 하위변인 중 심리·사회적 안녕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강성욱·하규수, 2013). 또한 사회적 관계망도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관계망과 성공적 노화와는 인과관계를 가지며, 이는 사회적 관계망 하위변수인 자기개발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임광규, 2015).

### Ⅲ. 연구설계

####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토대로 연구가설의 독립변인은 건강상태지각으로, 그 하위 요인은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으로 구성된다. 매개변인은 노후준비로, 그 하위 요인은 경제적 준비, 정서사회적 준비, 신체적 준비로 구성된다. 종속변인은 성공적 노화로, 그 하위 요인은 신체적 노화, 심리정서적 노화, 사회적 노화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결과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들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노인의 건강상태지각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노인의 건강상태지각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노인의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노인의 노후준비는 건강상태지각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 3. 측정도구

#### 1) 독립변수 : 노인 건강상태지각

본 연구에서의 노인 건강상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상태로 정의하며, 노인의 건강상태는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KReIS) 4차(2013년)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ADL(일상생활 수행능력) 7문항, IADL(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문항이며, 심리적 건강상태는 우울척도(CES-D) 20문항이다. 그리고 사회적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 문항 중 대인관계 6문항, 총 44문항으로 구성된다. 신체적 건강상태의 문항의 예는 ‘매우 좋지 않다(1점)’ ~ ‘매우 좋다(5점)’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ADL(일상생활 수행능력)문항과 IADL(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문항은 ‘혼자서 할 수 있음(1점)’ ~ ‘혼자서 할 수 없음(3점)’ 서열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건강상태인 우울문항은 ‘극히 드물다(0점)’, ‘가끔 있다(1점)’, ‘종종 있었다(2점)’, ‘대부분 그랬다(3점)’ 서열척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건강상태 6문항은 ‘매우 불만족(1점)’ ~ ‘매우 만족(5점)’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방법은 총 44문항을 합산한 값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ADL, IADL, CES-D 역채점 함).

〈표 1〉 건강상태지각 설문문항 구성

하위요인	구성요소	설문문항	문항수	응답
신체적 건강	일상생활 활동 (ADL)	1. 옷입기 2. 세수하기 3. 목욕하기 4. 식사하기 5. 이동 6. 화장실사용 7. 대소변조절	7	3점 리커트 서열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IADL)	1. 몸단장하기 2. 집안 일하기 3. 식사준비하기 4. 빨래하기 5. 근거리외출 6. 교통수단이용하기 7. 물건 사기(쇼핑하기) 8. 금전관리 9. 전화사용 10. 약 챙겨먹기	10	3점 리커트 서열
심리적 건강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2.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3.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 같다. 4.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5. 비교적 잘 자냈다* 6. 상당히 우울했다 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8.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9.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 한다* 11. 잠을 설쳤다 12. 두려움을 느꼈다 13.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어졌다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5.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8. 마음이 슬펐다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20.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20	4점 리커트 서열
사회적 건강		1. 현재 이웃들과의 관계 2. 현재 친구들과의 관계 3.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 4.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5. 현재 자녀와의 관계 6. 현재 형제-자매와의 관계	6	5점 리커트 등간
전체			43	

\* 역채점 문항

## 2) 매개변수 : 노후준비

본 연구의 노후준비는 경제적, 정서·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로 정의하였다. 노후준비는 경제적 노후준비 8문항,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10문항, 신체적 노후준비 10문항, 총 2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방법은 총 28문항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2〉 노후준비 설문문항 구성

하위요인	설문문항	문항수	응답
경제적	1. 노후생활의 경제적 여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 현재 가계의 총자산을 계산해 보고 있다 3. 절약하며 생활하고 있다 4. 저축을 하고 있다 5.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6. 창업이나 투자할 의향이 있다 7.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역모기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8.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수가 주어지는 일을 할 의향이 있다	8	5점 리커트 등간
정서 사회적	1.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 친구, 친지 혹은 마음 맞는 이웃과 자주 관계를 맺는 편이다 3. 가족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이나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5. 노후 사회봉사활동을 위해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편이다 6. 노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습회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 여가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다 8. 앞으로 여가활동시간이나 종류를 늘릴 의향이 있다 9. 가족 및 친지들의 상실에 대해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0. 노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종교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편이다	10	5점 리커트 등간
신체적	1. 체질과 건강을 고려하여 식생활을 하는 편이다 2.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나친 음주는 피하는 편이다 4.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흡연은 가급적 피하는 편이다 5.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 편이다 6. 충분한 수면시간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필요시마다) 건강진단을 받는 편이다 8. 만성질환을 조절하거나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9.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지 않는 편이다 10. 평상시 나 스스로 나의 건강상태에 대해 파악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0	5점 리커트 등간
전체		28	



### 3) 종속변수 : 성공적 노화

본 연구의 성공적 노화는 심리적, 사회적 성공적 노화로 정의하였다. 성공적 노화는 심리적 영역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13문항과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6문항, 사회적 영역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8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방법은 총 28개 항목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3〉 성공적 노화 설문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구성	문항	문항수	응답
신체	주관적 건강	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1	5점 리커트 등간
심리적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	1.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다 3.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4. 앞으로의 삶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다 5. 매일매일 할 일거리가 있다 6.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7.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 8. 친인척들과 자주 어울린다 9.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10. 취미, 종교,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1. 여러 종류의 친목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있다 12. 비슷한 환경이나 처지의 사람들과 서로 베풀며 산다 13. 자녀들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	13	5점 리커트 등간
심리적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1.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2. 몸이 허락하는 한 활동을 계속한다 3.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4.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5.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 6.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	6	5점 리커트 등간
사회적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1. 내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출세하였다 2. 내가 필요할 때 자녀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다 3. 자녀들이 건강하다 4. 자녀들이 결혼해서 화목하게 살고 있다 5.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자녀가 나를 돌봐준다 6. 내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켰다 7.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고 있다 8.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다	8	5점 리커트 등간
전 체			28	

####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공적 노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의 더미변수는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배우자 유무의 더미변수는 배우자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설정하였다.

〈표 4〉 통제변수의 문항

통제변수	문항
성별	남자=1, 여자=0
연령	65-69세=1, 70-74세=2, 75-79세=3, 80-84세=4, 85-89세=5, 90세 이상=6
학력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이상=5
배우자 유무	있음=1, 없음=0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대상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이 42.1%, 여성노인이 57.9%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은 65세-69세 노인이 4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70세-74세 (32.5%), 75세-79세(15.0%)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초등학교(국졸)가 38.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무학(19.6%), 중학교 (17.1%)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63.7%,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36.3%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전체노인 중 유배우자 노인은 90.0%, 여성 전체노인 중 유배우자 노인은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수이상의 여성노인은 배우자가 없이 노년기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288)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542	42.1
	여성		746	57.9
연령	65-69세		551	42.8
	70-74세		418	32.5
	75-79세		204	15.8
	80-84세		83	6.4
	85-89세		30	2.3
	90세 이상		2	0.2
학력	무학		253	19.6
	초등학교		494	38.4
	중학교		220	17.1
	고등학교		209	16.2
	대학(교)		102	7.9
	대학원		10	0.8
배우자 유무	있음		820	63.7
	없음		468	36.3
	남성	있음	488	90.0
		없음	54	10.0
	여성	있음	332	44.5
		없음	414	55.5

##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독립변수인 노인건강 점수는 평균 2.99점,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노후준비도는 평균 2.69점, 중간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화 점수는 평균 3.2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변수의 왜도 기준은 절대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대값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어(Kline, 2005; 김계수, 2010),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기준치에 적합하게 나와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표 6〉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1,288)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신체적	1.71	3.67	2.86	.331	-.307	.068	.200	.136
심리적	.50	3.00	2.54	.466	-1.323	.068	1.830	.136
정서·사회적	.67	5.00	3.57	.796	-.741	.068	.547	.136
노인건강	1.73	3.82	2.99	.359	-.516	.068	.091	.136
경제적	.88	3.75	2.10	.542	.262	.068	-.324	.136
정서적	.50	4.70	2.71	.697	.007	.068	.004	.136
신체적	1.20	5.00	3.26	.661	-.199	.068	-.238	.136
노후준비	1.19	4.01	2.69	.484	-.216	.068	-.140	.136
신체적	.92	5.00	3.04	.717	-.148	.068	-.055	.136
심리·정서	.00	5.00	3.38	.884	-1.613	.068	4.214	.136
사회적	1.17	5.00	3.44	.677	-.114	.068	.100	.136
성공적 노화	1.24	5.00	3.29	.623	-.344	.068	.467	.136

### 3. 상관관계 검증

노인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이들 간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변수와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다음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관관계 정도는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높아지고, 변화의 방향은 (+)는 양의 방향, (-)는 음의 방향을 의미한다(송지준, 2011). 또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2보다 작으면 상관관계가 없거나 무시해도 좋으며, 0.3에서 0.7사이에 들어오면 변수 간 상관관계를 가지며, 0.7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를 의미한다(류병곤, 2011). 따라서 상관관계 검증은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의 방향과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설검증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건강상태는 성공적 노화와의 상관계수( $r=.412$ ,  $p<.001$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스스로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성공적 노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노후준비도는 성공적 노화와의 상관계수( $r=.404$ ,  $p<.001$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노후준비도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N=1,288)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
건강상태	1		
노후준비	.333**	1	
성공적 노화	.412**	.404**	1

\*  $p < .05$ , \*\*  $p < .01$ , \*\*\*  $p < .001$

#### 4. 가설검증

##### 1) 건강상태지각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를 통제한 상태에서 건강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자료(time series data)를 다루었기 때문에, 오차항 값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하여 자기상관성(correlation)을 검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살펴보았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기상관성 검증으로 Durbin-Watson test 결과, d값이 1.385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오차항(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10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은 모두 10보다 작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설명력은 20.8%이며, 모형 적합도( $F=67.263$ ,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독립변수인 건강상태지각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 $\beta=.346$ ,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인의 경우 연령( $\beta=-.070$ ,  $p < .01$ ), 학력( $\beta=.184$ ,  $p < .001$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상태가 회귀식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건강상태지각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N=1,288)

구 분		B	SE	$\beta$	t	p	공선성통계량	
							공차한계	VIF
상수		1.336	.146		9.125***	.000		
독립변수	건강상태지각	.601	.049	.346	12.189***	.000	.765	1.307
통제변수	성별	-.011	.038	-.008	-.282	.778	.685	1.459
	연령	-.042	.016	-.070	-2.693**	.007	.906	1.104
	학력	.093	.014	.184	6.512***	.000	.771	1.297
	배우자유무	.004	.041	.003	.099	.921	.629	1.591
F		67.263(p=.000)						
R <sup>2</sup>		.208						
adj R <sup>2</sup>		.205						
Durbin-Watson		1.385						

\*  $p < .05$ , \*\*  $p < .01$ , \*\*\*  $p < .001$ 

reference group: ①성별-여, ②배우자 유무-배우자 없음

## 2) 노인의 건강상태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를 통제한 상태에서 건강상태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기상관성 검증으로 Durbin-Watson test 결과, d값이 1.385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오차항(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10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은 모두 10보다 작아서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건강상태의 노후준비에 대한 설명력은 19.1%이며, 모형 적합도( $F=60.660$ ,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독립변수인 건강상태는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 $\beta=.208$ ,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인의 경우 연령( $\beta=-.146$ ,  $p < .01$ ), 학력( $\beta=.198$ ,  $p < .001$ ), 배우자 유무( $\beta=.076$ ,  $p < .001$ )만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상태가 회귀식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9〉 건강상태지각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B	SE	$\beta$	t	p	공선성통계량	
							공차한계	VIF
상수		1.732	.115		15.074***	.000		
독립변수	건강상태지각	.281	.039	.208	7.259***	.000	.765	1.307
통제변수	성별	.017	.030	.018	.579	.563	.685	1.459
	연령	-.068	.012	-.146	-5.536***	.000	.906	1.104
	학력	.077	.011	.198	6.907***	.000	.771	1.297
	배우자유무	.077	.032	.076	2.413*	.016	.629	1.591
F		60.660(p=.000)						
R <sup>2</sup>		.191						
adj R <sup>2</sup>		.188						
Durbin-Watson		1.337						

\* $p < .05$ , \*\* $p < .01$ , \*\*\* $p < .001$

reference group: ①성별-여, ②배우자 유무-배우자 없음

### 3)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기상관성 검증으로 Durbin-Watson test 결과, d값이 1.402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오차항(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10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은 모두 10보다 작아서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설명력은 20.2%이며, 모형 적합도( $F=65.043$ ,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독립변수인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 $\beta=.320$ ,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인의 경우 학력( $\beta=.162$ ,  $p < .001$ ), 배우자 유무( $\beta=.087$ ,  $p < .01$ )만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상태가 회귀식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0〉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N=1,288)

구 분		B	SE	$\beta$	t	p	공선성통계량	
							공차한계	VIF
상수		1.960	.103		18.996***	.000		
독립변수	노후준비	.412	.035	.320	11.779***	.000	.842	1.188
통제변수	성별	-.019	.038	-.015	-.496	.620	.685	1.460
	연령	-.028	.016	-.046	-1.756	.079	.888	1.126
	학력	.082	.014	.162	5.635***	.000	.751	1.331
	배우자유무	.113	.039	.087	2.940**	.003	.703	1.422
F		65.043(p=.000)						
R <sup>2</sup>		.202						
adj R <sup>2</sup>		.199						
Durbin-Watson		1.402						

\* $p < .05$ , \*\* $p < .01$ , \*\*\* $p < .001$ 

reference group: ①성별-여, ②배우자 유무-배우자 없음

## 4) 건강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노인의 건강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검증은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활용하여, 첫 번째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과의 회귀계수(경로a)를 추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두 번째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회귀계수(경로c)를 추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세 번째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회귀계수(경로c')를 추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인이 통제되었을 때의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경로b)와 매개변인이 통제되었을 때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경로c')를 분석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다음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검증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건강상태는 매개변수인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 $\beta = .333$ ,  $p < .001$ )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건강상태가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 $\beta = .412$ ,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건강상태는 매개변수인 노후준비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 $\beta = .312$ ,  $p < .001$ )을 미쳤으며, 매개변수인 노후준비는 독립변수인 건강상태를 통제



한 상태에서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 $\beta=.299$ ,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 2단계에서 독립변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2단계에서 나타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 $\beta=.412$ ,  $p<.001$ )이 3단계( $\beta=.312$ ,  $p<.001$ )에서 감소되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건강상태의 설명력은 16.9%이었으나, 노후준비가 투입되었을 때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설명력은 24.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text{Adjusted } R^2 = 7.9$ ,  $p<.001$ ).

매개효과 검증결과 직접효과(c')는 .312이며, 간접효과는(a·b)는  $\approx .10$ , 총효과(c)는 .412으로, '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 등식이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노후준비가 부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표 11〉 건강상태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N=1,288)

단계	Path	B	SE	$\beta$	t	Adjusted $R^2$	p
1단계	건강상태→노후준비(a)	.450	.035	.333	12.685***	.111	.000
2단계	건강상태→성공적 노화(c)	.715	.044	.412	16.223***	.169	.000
3단계	건강상태+노후준비(통제) → 성공적 노화(c)	.542	.044	.312	12.185***	.248	.000
	건강상태(통제)+노후준비 → 성공적 노화(b)	.385	.033	.299	11.679***		.000

\*  $p<.05$ , \*\* $p<.01$ , \*\*\*  $p<.001$

또한 매개효과 검증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Mackinnon 등 (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Sobel-Test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검증하고 확인하였다. Sobel 검증에서 Z의 절대값,  $|Z| > 1.96$  이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배병렬, 2010). Sobel 검증에 의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검증은 다음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Z=8.639$ ,  $p<.001$ 로 나타나 건강상태와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에서 노후준비는 정적(+)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상태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노후준비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Sobel-Test 결과

간접효과	모형화	Z	p-value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건강상태 → 노후준비 → 성공적 노화	8.639***	.000
2단계	건강상태 → 성공적 노화(c)	.715	.044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IV. 결론

###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압축적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라는 개념이 부각된 이후, 성공적 노화는 각기 다른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개념을 측정하는 방식 또한 학자들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념 및 정의가 일관되지 않다. 즉, 성공적 노화는 생물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그리고 의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성공적 노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화를 상실과 쇠락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노화를 수용하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점에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된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많았으며, 연령은 65세-69세,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한 노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전체노인 중 유배우자 노인은 90.0%이었으나, 여성 전체노인 중 유배우자 노인은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수이상의 여성노인은 배우자가 없이 혼자 노년기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노인의 건강상태 평균점수는 중간수준이며, 노후준비도 평균점수는 중간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공적 노화 평균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건강상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은 낮을수록,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건강상태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권재일(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반면, 이미

란(2011)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더 높았으며,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연령과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은 낮을수록,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노후준비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박용두(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송기영(20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서정숙(2018)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더 높았으며, 연령과 최종학력,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은 낮을수록, 최종학력은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성공적 노화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승훈(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여미옥(2013)과 김유라(2017)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더 높았으며, 연령과 최종학력,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건강상태와 성공적 노화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성공적 노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신체적 건강(장재원, 2013; 안지원, 2014; 김보미, 2018), 사회적 건강(윤현숙·유희정, 2006; 신영화·이혜정, 2009; 정여진·안정신, 2012), 그리고 심리적 건강(김재중, 2008; 노준희, 2014; 강지애, 2015)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힌 연구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와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준비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성공적 노화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박성준, (2016), 박순조(2016), 송기영(2018), 이영애(201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검증 1, 2단계에서 독립변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2단계에서 나타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3단계에서 감소되어, 매개변수인 노후준비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건강상태의 설명력보다, 노후준비가 투입되었을 때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설명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 등식이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상태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후준비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연구결과의 함의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와와의 영향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조작화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간의 영향관계에서 노후준비가 매개역할을 하는 변수임을 밝혔다는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둘째,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노인 여가 및 문화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수명이 평균 80년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노년기는 최소 20년 이상의 긴 여가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에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년기의 의미 있는 활동으로 사회적 역할상실에 따른 고독감 및 무위 해소, 정체성 유지, 생활만족도 증진 등 노인의 건강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가 및 문화시설 마련은 시급한 당면과제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경제적, 정서·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를 위하여 퇴직(준비)교육, 재취업(창업)준비교육, 죽음준비교육 등 노인교육(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학문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노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안정망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가족관계망의 약화로 우리나라 여성 노인은 배우자 사망이후 과반수는 독거노인으로 지내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는 대부분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노후준비 및 여가시간활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필요시 재가나 시설에서 노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독거노인의 사회적 안정망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노년기를 맞이한 빈곤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경제 사회의 빈곤노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사회의 구조·환경적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노력을 통하여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유희노인인력 활용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조사 데이터는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자료가 아니므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필터링하여 추출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검증방법의 한계이다. 양적조사의 특성상 노인의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기에, 완벽하게 설명해줄 수 없어 심층적인 사실의 발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로 연구대상자의 상황이나 실정에 대한 심층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질적연구가 수행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나,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상태지각 도모와 노후준비 마련이 노인을 성공적 노화로 이끌 수 있는 단초라는 점을 밝혔다는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강지애, 201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재일, 2011,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연·정여진, 2006, “건강 및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의 요소 탐색”, 노인 복지연구, 제34권, pp. 31-54.
- 김동배, 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제60권 1호, pp. 211-231.
- 김동배·유병선·민정선, 2011, “노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건강 수준 차이의 요인분석”, 한국 사회복지연구회, 제42권 3호, pp. 267-290.
- 김미령, 2017, “노인의 성공적 노화 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연구: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57권, pp. 159-182.
- 김보미, 2018,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라, 2017, “노인의 건강운동 참여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중, 2008,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준희, 2014, “농촌거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모형”,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준, 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SOC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순조, 2016,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도·농간 비교연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두, 2015, “노인에 생산 활동 및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남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창제, 2017, “고령자의 재무적 노후준비 경향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998년, 2002년, 2009년, 2015년 비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제4권 3호, pp. 163-187.
- 박현식, 2012, “베이비부머의 노후비와 성공적 노후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 281-302,
- 서정숙, 2018, “노후준비도가 노인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선우덕, 2015,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보건사회연구원, 통권 299호, pp. 1-8.
- 송기영, 2017, “노인의 장애유무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재활복지, 제21권 1호, pp. 71-95.
- 신영희·이혜정, 2009, “일 도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제29권 4호, pp. 1327-1340.
- 안지원, 2014, “재가노인의 성공적 노화 예측모형”,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여미옥, 2013,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참여 태도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현숙·유희정, 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pp. 5-31.
- 이미란, 2011, “노인의 건강성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 가족지지 매개효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정, 2011,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설계지원서비스의 방향”, 보건·복지 Issue & Focus 98호, pp. 1-8.
- 이영애, 2019, “준·고령자의 가족탄력성과 노후준비 정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사회적 요인의 매개효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재원, 2013,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스트레스와 탄력성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여진·안정신, 2012,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0권 2호, pp. 535-550.
- 정옥분·김동배·정순화·손화희, 2008,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지승훈, 2010,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도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성희·곽인숙, 2011,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2호, pp. 89-104.
- 홍영준·이정훈, 2014, “노후준비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8권 4호, pp. 91-110.
- 홍현방, 2001, “성공적인 노화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Crowther, F. Kaagan, S. S, Ferguson, M., and Hann, L., 2002, “Developing

- Teacher leaders: How Teacher Leadership Enhances School Succes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De Haan, E., and Kasozi, A., 2013, *The leadership shadow: how executives can face up to derailment, hubris and overdrive*, London: Kogan Page.
- Fisher, B. J., and Specht, D. K., 1999, "Successful aging and creativity in later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3(4), pp. 457-472.
- Phelan E. A., Anderson L. A., LaCroix A. Z., and Larson E. B., 2004, "Older Adults' Views of "Successful Aging" - How do they Compare with Researchers' Defini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2(2), pp. 211-216.
- 보건복지부, 2018, "2018 노인실태조사"
- 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자살통계", [www.spckorea.or.kr](http://www.spckorea.or.kr)
- 통계청, 2015a, "2015년 사회조사"
- 통계청, 2019, "2017년 가계동향조사"



# The Effects of Health Status on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tirement Preparation

Choi, Jae Gon, Yemyung Graduate University, Social Welfare Major, Assistant Professor

## Abstract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takes a negative view of loss and decay, but is interested in accepting aging in a positive way, what environments and conditions lead to successful aging, and has taken social welfare measures to prepare for successful aging. To this end,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were used in this study.

In this stud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Win 23.0 program,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generated using the three-step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method of Baron and Kenny (1986)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tirement preparation on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independent variables and parameters significantly affected dependent variables in stages 1 and 2, and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s in stage 2 was reduced in stage 3. In addition, the explanatory power of successful aging increased when retirement preparation was put in, rather than the explanatory power of health status for successful aging, which also confirme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Accordingly,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has a direct effect on successful aging and also h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retirement preparation.

Keyword : Elderly, elderly health, retirement preparation, successful aging, National Old Age Security Panel (KReIS)

---

접 수 일 : 2023년 0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3년 05월 09일

게재확정일 : 2023년 05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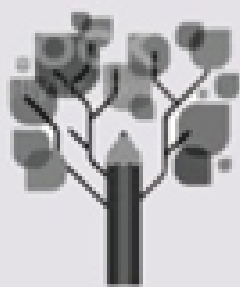
편집위원장 권진(예명대학원대학교)  
편집위원 이기선(예명대학원대학교)  
김현숙(예명대학원대학교)  
박수빈(인천연구원)  
경승구(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석환(서울시50플러스재단)

## 글로벌융합복지 제1권 1호

---

발행일 : 2023년 5월 31일  
발행처 : 글로벌융합복지학회  
발행인 : 강석주  
저작권 : 글로벌융합복지학회

---



The 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Welfare